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캐스팅보트 한인들 등돌려... “해리스, 조지아 표심 잃었다”

한인들 “불황기에 경제 최우선” 한목소리

대선에서 7대 스윙스테이트(경합주) 중 하나인 조지아는 한인 이민자 유입 비율이 급증하면서 이 지역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최근 악화된 불황기에 현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승부처로 해리스 부통령으로선 포기할 수 없는 곳이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한인 유권자들의 민심 이반 징후가 적잖아라는 지적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델루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지아주 한인 커뮤니티가 과거에는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가져다 주었지만 최근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재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이민자들은 1980년대 말부터 조지아 주도(州都) 애틀랜타 인근 델루스를 중심으로 한 귀넷 카운티에 대거 자리잡기 시작했다. 202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서베이(ACS)의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에는 총 7만1800여 명의 한인(혼혈 포함)이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 이후 유입 인구가 급증한 귀넷 카운티는 한인 최다 거주 지역이다. 귀넷 카운티는 당초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가 크게 늘면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연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승리를 안기는 등 지형이 바뀌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생활비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



지난달 20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콰 에너지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여성 낙태권 관련 캠페인 행사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가 흔들리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진단했다. 지난 7월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권자 단체인 ‘APIA 보트(vote)’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계 유권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2020년 51%에 올랐던 38%로 떨어졌다. APIA 보트가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와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35%를 기록해 4~5월 조사 당시 지

지율 27%에 비해 8%포인트 높아졌다.

귀넷 카운티에서 한국식 바비큐 식당을 운영하는 이성용씨는 “특정 품목 식재료는 가격이 80%나 올랐다”며 “바이든의 경제에 실망했다.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미용실 업주 신경옥씨도 “경기가 안 좋다. 손님이 50%나 줄었다”며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몇 주 동안 경제와 이민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화장품 가게 매장 직원 데이 김씨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은 요즘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적대시 노선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다. 귀넷 카운티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클라라 리가 그런 경우다. 그는 “트럼프 집권 때 숨어있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본모습을 드러냈다”며 “저 자신이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후보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폴

리티코에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0~2022년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잇따르면서 인종차별과 공공 안전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무술 쿵푸(kungfu)와 독감(flu)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쿵 플루’(kung flu)라고 하는 등 사실상 인종차별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취재진이 만난 대부분의 (한인) 상인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해리스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를 바이든의 연장선상 인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4면 ‘캐스팅보트’로 이어집니다**

“한국 전쟁 위험 1950년 이후 가장 높다”

“북, 6~18개월내 극적행동 가능성” 연평도 상륙 뒤 핵무기 사용도 거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 스티븐슨 선임연구원이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7일자에 ‘또 다른 한국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앞서 지난 1월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지난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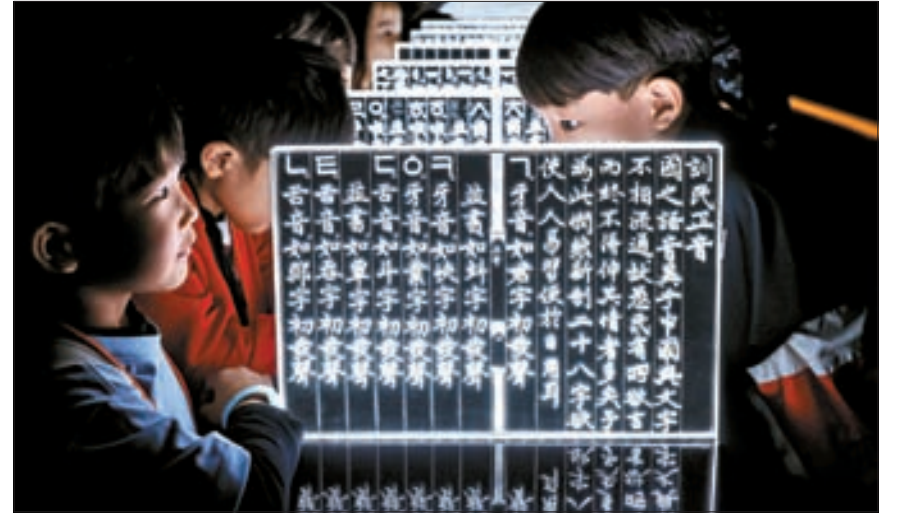
년 동안 미 정부 안팎에서 북핵 문제를 다뤄왔지만, 한반도는 195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정해 보인다”며 “(전쟁이)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북한이 향후 6~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면서다.

매닝 연구원은 지난해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내놓은 ‘북한: 2030년 까지의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남침 시나리오를 거

론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이 맞대응 차원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척하다가 연평도에 병력을 기습 상륙시킨다는 시나리오다. 이후 한국 공군과 해군이 반격에 나서고, 해병대가 연평도 재탈환에 성공하는 틈을 타 북한이 인근 무인도를 향해 전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매닝 연구원은 “이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과 신뢰할 수 있는 외교·군사적 소통 채널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상진 기자**



오늘 한글날...“훈민정음 신기해요”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훈민정음 해례본(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예시를 담은 책)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578동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 [뉴스1]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량지달리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야당, 김여사 상설특검... 친한 “도이치 기소해야”

거야, 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강행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도 배제

신지호 “탄핵 마지노선 8표 지켜야
검찰이 기소하면 여당 부담 줄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며 세종시청에서 단식 중인 최민호 시장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국회에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박주민 의원(왼쪽부터).



국회사진기자단.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데 이어 8일 상설특검 카드까지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반발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선 김여사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존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애완권을 자처하면 특검이 정답”이라며 “끝장 국정감사,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 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 규칙만 변경해 추진되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얽힌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첫 계단을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마약 수사외의 의혹 및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삼부토건 추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개별특검보다 조직이 협조하고 수사 기간도 짧아 모든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나머지 범죄는 (재발의 예

정인) 별도의 ‘김건희 특별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별도 입법 없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에서 추천

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몫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제1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그 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추천 몫 4인’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경우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의결한 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규칙은 운영위 개정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입법사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은 개별특검보다 수사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60일로 짧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동된 건 세월호 특검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일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거부권 도돌이표가 반복될 것이라면 상설특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국회의 마지막 권한”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정상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생만을 살피고 모자랄 국정감사 첫날에 거대 야당의 탄핵 빌드업 시리즈가 끝도 없이 펼쳐졌다.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찢어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달라진 기류가 포착된다. 지난 4일 김건희 특별법 재표결에서 4표의 여당표 이탈을 확인한 뒤로 “다음번엔 재표결 가결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초선 의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정·성지원 기자

“나 구속되면 한달 안에 정권 무너져” 명태균 입에 여권 술렁

명씨 “대통령 자택 내부 훤히 알아”
친분 과시... 공천 등 개입한 의혹



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 지역구 이동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경남 창원 지역에서 ‘화백(畫伯)’으로 불리던 이가 있다. ‘여론조사 수치를 잘 그린다’는 의미의 별명이다. 김건희 여사의 ‘경남 창원시장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명태균(사진)씨를 일컫는 호칭 중 하나다. 경남도 의원을 지낸 인사는 8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명씨는 여론조사 1등을 만들어 주겠다는 식으로 유력 정치인에 접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며 “평소에도 인맥을 과시하는 경향이 짙어 그를 경계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을 덮치고 있다. 명씨가 전국적 인지도를 누리게 된 건 지난달 시작된 인터넷매체 뉴스토마토의 집중 보도를 통해서다.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초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내세우는 명씨의 말에 “정치 브로커의 허황한 주장”(당 관계자)이라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명씨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명씨는 이 밖에도 무자격 상태로 여론조사를 실시 및 보도한 혐의,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수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명씨의 언론 인터뷰에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명씨는

6일 진행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강조하며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갔고, 내부 구조도 훤히 알고 있다. 대통령 집을 열어 보면 개 한 마리가 묶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여사와) 수시로 통화했다”며 “(언론엔)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자택에 대여섯 번 방문해 국무총리 인사 추천 등 여러 정치적 조언을 했고, 윤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밤 보도된 채널A 인터뷰에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냐”

라고 검사에게 물겠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명씨는 그날 밤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에게 연락해 “하야, 탄핵 발언은 농담 삼아 한 이야기”라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들을 통해 명씨를 두 번 만났다”면서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명씨의 “일종의 벼랑 끝 전술”(신지호 부총장)이란 반

응이다.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전 의원은 이후 명씨에게 매달 자신의 세비 절반을 건네는 방식으로 9000여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공천 대가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명씨가 입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한 그는 2021년부터 김 전 의원 소개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의원 등 보수 진영 유력 정치인과 연을 맺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여권은 물론이고 야당의 현역 의원 일부도 명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명씨와 관련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구태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적었다. 김기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10월 9일(수) 73~48	10일(목) 66~43	11일(금) 69~49	12일(토) 79~56
	13일(일) 79~55	14일(월) 64~46	15일(화) 60~4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위,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SOLD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무궁화 동산에서 펼친 한글 축제”

아리랑 USA공동체 아리랑청소년문화축제 성황

아리랑USA공동체(회장 장두석)가 메릴랜드 엘리콧시티 소재 파타스코 주립공원에 조성된 무궁화동산에서 제 578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아리랑 청소년 문화축제 및 한글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두석 회장은 “한글은 한민족의 자부심”이라면서 “한류문화 열풍으로 한글이 세계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대회장을 맡은 강고은 옴니화재 대표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의 소중함을 미국에서 살아갈 차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는 조명옥 씨의 사회로 국민의례 및 묵념, 개회기도(베다니한인연합



기념식 참석자들이 행사에서 합창하고 있다.

감리교회 박대성 목사)로 시작됐다. 그리고 조기중 총영사, 파타스코밸리 주립공원 록 다이크 총매니저와 마크 장 MD주하원의원, 황보철 준비위원장의 축사 및 각종 시상식 그리고 기념공연으로 이어졌다.

기념공연에는 일레노어 루즈벨트 하이스쿨 K팝 댄스팀과 김희식 씨의 알토세소폰 공연, 무사 마살아트팀의 태권도 시범, 풍물패 한편의 사물놀이 공연 등이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날 아리랑 USA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 상장 및 장학금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최예현(소망한국학교), 금상: 김민석(빌립보한국학교), 은상: 정이안(가든한국학교), 동상: 한소영(볼티모어에덴한국학교), 장려상: 윤 율, 김예나, 베레아, 이라운, 임민지, 김동준, 윤세아, 이두희, 남예령, 이나라, 이삭, 장주희, 전민아, 지세빈, 한상원, 신다현, 신서현, 곽나라, 김세령 등.

박세용 기자

손목자 전 GCF 이사장 별세

손목자(사진) 글로벌 어린이재단 전 이사장이 지난 5일 한국에서 영면했다.

고인은 워싱턴가정상담소 이사장, 중앙대 워싱턴 동문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러 한인단체에서 봉사해왔다.

손 전 이사장은 글로벌 어린이 재단(GCF)을 창립한 장본인이며, 워싱턴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빈곤아동 구호 사업을 전개해왔다.

고인은 중앙대 약대를 졸업, 한국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도미했다. 고인



의 부군은 손영환 워싱턴과학기술대 전 총장으로 부부가 함께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다.

한편 평소 건강했던 고인의 갑작스런 타계 소식에 워싱턴 한인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장례 내용 및 일정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DC 교통티켓 무시 못한다

새 법률 시행, 소송 걸어 끝까지 추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이 워싱턴 DC에서 받은 교통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워싱턴DC는 이달초부터 타주 거주 운전자의 교통티켓 범칙금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워싱턴DC 검찰청이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타주 주민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운전자 상당수는 워싱턴 DC에서 티켓을 끊어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2차적 사법 재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워싱턴DC 검찰은 교통범칙금을 미납한 타주 주민을 고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변호사 2명을 별도로 고용했다.

일차적으로 범칙금 액수가 수만달러에 이르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



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찰스 알렌 워싱턴DC 시의원은 “소송이 본격화되면 고액 채납자로부터 엄청난 벌금과 추징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률은 지난 2월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돼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워싱턴DC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2명으로 증가했다.

새 법률에 의하면 상습적인 난폭 운전 전과자 차량에 주행감시 장치를 장착하고 차량의 속도를 자동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6개월 기간 동안 누적 벌점이 10점에 도달할 경우 차량 부팅 및 견인조치에 들어가도록 했다.

김욱재 기자

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 월례회

워싱턴예수사랑 교회서 열려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회장 김택조 목사)의 10월 기도회가 지난 8일, 워싱턴예수사랑교회(담임 이성웅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양경옥 목사의 인도로 박희숙 목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이택래 목사가 요한복음 15:12-17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크로마하프단(단장 김영란)의 특별



연주 이후, 한 훈 목사가 봉헌기도를, 박관진 목사가 광고를 전달하며 신석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김택조 회장의 감사 인사와 함께 원로목사회가 교

역자회에, 교역자회가 워싱턴예수사랑의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월례회 예배는 11월 4일(월) 오전11시, 빌립보 교회(담임목사 박동훈)에서 갖는다. 김윤미 기자

11월1일 이전에 텃밭 농작물 정리해야



최근 30년 워싱턴 지역의 첫 서리점 이하 날씨를 보이는 평균 일자는 11월 1일로 나타났다.

서리는 포화 기체의 수증기가 얼음으

로 응결되는 현상으로,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떨어지는 차갑고 구름이 없는 밤에 형성된다. 낮에는 지표면이 태양에서 열을 흡수하지만, 해가 지면 땅은 식기 시작한다.

맑은날 밤에는 지표면에서 방출된 열을

흡수하여 이를 다시 방출하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구름간 밤보다 기온이 더욱 크게 떨어진다. 기온이 섭씨 0°C 아래로 떨어지면 이슬 방울의 일부가 얼기 시작한다.

서리가 내리면 식물이 어는 ‘킬링 프리스트’ 현상이 나타나 텃밭 작물의 피해

가 발생한다. 연방해양대기청(NOAA)은 1991년 이후 평균 서리점 이하로 내려가는 중간 일자가 10월29일부터 11월5일 사이였다고 전했다.

서리점이 풀리는 평균 일자는 4월 11일이었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 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메디케어

“자녀는 멀고 에이전트는 가깝다”

임강호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2025 메디케어 플랜가입 및 변경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상담내용

- 2025년 중단되는 플랜과 플랜들의 혜택 변경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회사 일치화 (VA 해당)
- 처방약 보험 혜택의 변경
- 추가혜택의 변경
- 1960년 출생인들의 메디케어 최초 등록

- 같은 보험일지라도 매년 혜택이 같지는 않습니다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0] organization which offer [84]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임강호
Licensed Agent

상담전화
(703) 989-3031

11325 Random Hills Rd., #650,
Fairfax, VA 22030

Sponsored by



스마트보험
SMART INSURANCE

미국 입양인 생모 한국 정부에 소송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 모른 채 딸 44년 동안 찾은 70대가 제기 “실종아동 가족 재회 의무 안 해” 잘못된 국가 책임 묻는 첫 사례

실종된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모른 채 44년간 행방을 찾아 헤매던 70대 한국 여성이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친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입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실종된 딸 신경하(영어 이름 로라 밴다)씨의 어머니 한태순(70)씨는 7일(한국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한국 정부가 딸의 입양을 막

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최대 입양 기관인 홀트가 딸의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입양을 진행했고,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입양 기관은 실종 아동을 가족과 재회시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종 아동 정보가 경찰서 간에 적절히 공유되고 수색이 진행됐더라면 딸 신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씨와 딸 신씨의 결별은 당시 성급했던 해외 입양 알선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1975년 5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실종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AP를 통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낯선 여성이 다가와 엄마가 다른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족이 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여성을 따라 기차를 탔고, 이후 제천역에 버려졌다”고 덧붙였다. 그 후 신씨는 고아원을 거쳐 입양 기관으로 인계되었으며, 새로 지은 한국 이름 ‘백경화’로 1976년 2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한씨는 지난 2019년 10월, DNA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찾기를 돕는 단체 ‘325 캠페인’을 통해 마침내 딸 신씨를 찾게 되었다.

한씨는 딸이 입양된 사실조차 모른 채 경찰서와 정부 기관, 입양 기관을 수시로 찾아다니고 가로등과 기차역 등 곳곳에 딸의 사진을 붙이며 44년을 보냈다. 한씨는 “44년 동안 내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며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나 분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한씨는 44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경준 기자

앤디 김-커티스 버쇼, 낙태·이민 두고 격돌

1차 토론회서 주요 이슈 부각 버쇼, 토론 중 연단 잡고 휘청 김 의원 “사실상 승리” 자축



앤디 김

커티스 버쇼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정치인 앤디 김(42·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커티스 버쇼(63·공화) 후보와의 첫 토론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은 토론 결과 사실상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6일 뉴저지주 소재 사립 리더 대학 산하 레보비치 인스티튜트 포 뉴저지 폴리틱스·지역매체뉴저지글로브가 주최한 1차 토론회에서 버쇼는 돌연 굳더니 연단을 잡고 휘청였다. 눈을 카메라에 고정했고, 그를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는 듯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자리를 이탈,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어렵게 “그렇다”고 답했다. 사회자는 서둘러 장내를 정리, 10분간 재정비했다. 돌아온 버쇼는 “종일 먹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두 후보는 낙태 권·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문제·이민 등을 두고 격돌했다.

김 의원은 게이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버쇼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낙태권을 정말 뒷받침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건 그의 판단력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교했다.

버쇼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뉴저지의 문제”라며 “주차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나는 온건파로서 뉴저지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5년말 만료되는) 지방세(SALT) 공제 상한선이 부활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고, 버쇼 후보도 이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여성이 죽어나가선 안 된다”며 “이민자의 아들이 미국서 연방상원의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출발선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50대 한인 남성, 이웃집서 20만불 절도

평소 식사까지 하던 친한 사이 피해 여성 “산책간 사이 훔쳐가”

한인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에 침입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피해자 가족과 함께 식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남쪽의 패서디나 지역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지역 언론 캐피털 가젯은 앤 아룬델카운티 경찰국의 발표를 인용, 이명수(53)씨가 이웃집 여성이 모아둔 현금 2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은 이씨와 피해 이웃이 함께 저녁까지 먹었지만 법원 기록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이후 아들과 함께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침실 창문이

꺼져 있었고 20만 달러를 보관했던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다”고 전했다.

캐피털 가젯이 입수한 기소장에는 ▶평소 이씨가 창문을 통해 피해 이웃의 집을 들여다보았고 ▶이웃인 피해 여성이 옷을 벗는 것을 관찰했으며 ▶경찰이 감시 카메라를 검토한 결과 이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씨가 피해 이웃의 집 뒤

면으로 가기 전 아파트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이씨의 증언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사 관계자는 기소장에서 “이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현금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다’고 했지만,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현금 16만4140달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씨가 한국어 통역관을 통해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장영기 기자

애틀랜타 공항 한국인 추방 빈발

불법 파견 근로 증가 심사 강화

한국인이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다.

불법 파견 근로가 늘면서 공항 출입국 심사당국은 ‘한국인-사바나-전자여행허가제(ESTA)’라는 세 연결고리가 적발되면 우선 제동을 걸고 있다.

한국인 위모씨(42)는 지난 2일 오전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입국 거절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됐다.

양국간비자면제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해 입국한 그는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 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3주간 머무르며 남부 관광을 할 계획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CBP측은 “도심 명소 인근도

아닌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이 있는 지역에 여행차 들른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체류 장소가 공장 근로자를 위한 공유숙박업 밀집지역인 점과 여권 발급 일시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취업 목적 입국의 정황 근거로 해석됐다. 이날 당국은 위씨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50대 한국인의 한식당 불법 취업 계획도 적발해 함께 강제 귀국시켰다.

위씨는 “CBP 심사를 도와준 한국어 통역사가 아시아권 입국자 중 일평균 3명은 본국 송환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성명화 경찰영사 역시 “불법 취업의 여파로 혼자 입국한 40~50대 한국인 남성이 엘라베마주 몽고메리를 목적지로 언급할 경우 입국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문제는 CBP가 항공권 판매대행업

체를 이용한 것 역시 불법 취업을 추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데려온 사람이 입국 거부돼 이종으로 항공편 비용을 지불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며 “항공편 발권시에 이용 목적을 알리지 않으니 여행사 입장에서는 입국의 합법성 여부를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와 인력 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식 취업비자 없이 불법 취업을 조장하는 데 있다.

텍사스주 잭슨-워커 로펌 소속 신상민 기업인민 전문변호사는 “한국 기업과 만난 첫날부터 우리는 취업비자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게 된다”며 “관련 업계 사람들을 만나 업무회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술적 엔지니어링 일을 시작하는 순간 불법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1면 ‘캐스팅보트’에서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인종차별, 이민 문제, 의료비 등을 내세워 표심 공략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 흥 공화당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상당수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경제가 항상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원한다”며 “그래서 민주

당보다 보수적인 쪽(공화당)에 더 많이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1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 이후 다소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2~4일 미국 성인 1714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 가운데 해리스 지지율은 48%로 트럼프(46%)를 오차범위(±

3%포인트) 내인 2%포인트 앞섰다.

이는 지난 9월 10일 두 사람의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격차 5%포인트(해리스 50%, 트럼프 45%)에서 좁혀진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투표 의향층 유권자로 범위를 좁히면 두 후보는 47%로 동률을 기록했다. 야후뉴스는 “해리스가 9월 TV 토론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기 전의 통계적 교착 상태로 돌아갔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인플레이션 시대 제품·서비스 질 저하 확산

가격·형태 그대로 생산비 절감
기업들 스킴플레이션 증가세
홀푸드 상징 베리샐러데이케이크
“맛 변했다” 틱톡 30만회 조회
산업 전반서 감원·서비스 축소



홀푸드 케이크의 맛 변화를 지적하는 틱톡 게시물. [컬처워크 틱톡 캡처]

치솟은 물가로 인해 식품품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이어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에 따라 가격은 유지 또는 인상하면서 제품 크기나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달리 스킴플레이션은 가격과 형태는 그대로 두고 제품의 재료 함량이나 서비스 질을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CNN은 7일 홀푸드를 상징하는 제품 중 하나인 베리샐러데이케이크가 예전과 같지 않은 맛과 질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확산되고 있는 스킴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보도했다.

22만여 구독자를 보유한 틱톡커 컬처워크는 지난달 19일 영상을 통해 신선한 과일과 크림으로 채워져 있던 베리샐러데이케이크가 이제는 과일 몇 조각과 함께 실탕에 절인 과일로 대체되며 세정제 향이 나는 라즈베리 잼 같은

맛이 난다고 혹평했다. 이 영상은 조회 수 30만회에 달하며 좋아요 2만9800개, 댓글 969개가 달리는 등 화제가 되고 있으며 베리샐러데이케이크 애호가들은 스킴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홀푸드는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500여개 매장서 판매되는 케이크를 표준화하기 위해 맛 프로필, 크기, 포장 및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지

난해보다 상당히 완화됐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제품 및 후기 등이 공개돼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기 더 쉬워졌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슈링크플레이션과 달리 스킴플레이션은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킴플레이션은 기업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인색하게 줄이는 것으로 고객이 재료 목록을 비교하지 않는 한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은 저렴한 재료로 변경할 때 위험을 감수한다. 단일 제품의 질이나 맛의 변화가 두드러질 경우 종종 소비자가 인지하게 돼 구매 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홀푸드는 지난 4월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사랑을 받아왔던 예전의 베리샐러데이케이크 싱글 슬라이스를 이번 주 안에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스킴플레이션은 식료품 이외에도 매장서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지원하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호텔의 하우스키핑 서비스 축소와 같은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박낙희 기자

차량 리스하면 구매보다 수만불 절약

4년간 소유 vs 리스 비용 비교
세볼레 콜벳 3만9024불 저렴
10개 모델 최소 2만불 차이나
소유 비용의 절반 수준 불과

비싼 가격과 오토론 고이자율로 신차 구매가 부담되는 가운데 모델에 따라 구매 대신 리스로 수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고뱅크레이츠는 최근 켈리블루북 데이터를 참고해 2023년형과 2024년형 인기 모델들을 대상으로 4년간 소유 비용과 리스 비용을 산출해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리스가 구매보다 유리한 모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리스 비용이 소유 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우선 2023년형 세볼레 콜벳(업체 권장가격 MSRP 7만2000달러)은 4년간 총 리스 비용이 3만9024달러로 소유비용 7만8048달러보다 3만9024달러나 저렴해 절약 폭이 가장 큰 모델로 선정됐다.

2023년형 모델로는 기아 스텔러(MSRP 3만7865달러)가 리스 비용 2

만544달러로 소유비용 4만1077달러보다 2만533달러 저렴했다. 닛산 맥시마(MSRP 4만4450달러), 폭스바겐 알테온(MSRP 4만3010달러)도 소유 대신 리스로 각각 2만4106달러, 2만329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마쓰다 MX-5미아타 RF(MSRP 3만7010달러) 역시 소유 비용은 4만138달러이나 리스 비용은 2만64달러로 2만74달러 더 저렴했다.

이번 조사에 사용된 신차 소유 비용은 업체 권장가격(MSRP)의 20% 다운페이액수와 해군연방신용조합의 오토론 계산기를 사용해 이자율 5%를 기준으로 산출된 48개월간 월 할부금 총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리스 비용은 인센티브나 트레이드인 없이 에드먼즈 리스 계산기를 사용해 이자율 5%, 잔존차치 62%, 연간 1만2000마일을 기준으로 48개월간 총 리스 비용을 산출했다.

두 경우 모두 지난 2월 26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구매, 리스 비용 비교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수수료, 세금 및 기타 관리비는 제외됐다.

박낙희 기자

메가밀리언스 티켓 2볼→5볼로 올린다

된다. 개편 후에는 티켓 판매량에 따라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된다.

개편 후 모든 게임에는 내장된 승수 기능이 추가된다. 그동안 1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해야 했던 메가플레이어 기능이 모든 티켓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잭팟 외의 당첨금도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승수는 2배, 3배, 4배, 5배 또는 10배 중 무작위로 결정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두 번째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브레이크 이븐 상금은 사라진다. 대신 현재 1장당 2달러인 티켓 가격은 5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기본 티켓 가격과 파워볼 티켓 가격인 2달러의 두 배에 해당한다.

복권국은 메가밀리언스의 정확한 시행 날짜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정윤재 기자

금값 뛰는데 한인 거래는 한산

한 돈짜리 돌반지 330~350달러

금값이 또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한인 소매 업체들의 금 거래는 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후 1시52분 기준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Group)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콤엑스(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GCZ24)은 트로이온스(1oz=31.10g)당 2662.40달러에 거래됐다. GCZ24 기준 금 가격은 이날 장 중 한때 2679.20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년 내 최저(1959.3달러) 대비 45.9% 뛰어올랐다.



금 현물 역시 장 중 2649.20달러로, 역대 최고치 대비 소폭 후퇴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이어 중동전의 확산 위험이 급격히 고조되며 금값에 상승 압력을 넣어 오름세를 이었지만 지난 4일 발표된 강력한 고용 지표로 빅컷 가능성이 배제되고 동결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금값의 강세가 한풀 꺾였다”고 분석했다.

금값의 고공행진이 지속하고 있지만 한인 보석상들은 실제 금의 소매 거래는 부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 따르면, 골드바 가격은 2700~2800달러이며 한 돈짜리 돌반지는 330~350달러 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을 사러 온 고객은 너무 비싸서 발길을 돌린다”며 “또 작년에 금값이 크게 올랐을 때 이미 많이 팔아서인지 금을 팔려는 고객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물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도 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서재선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아라조물) 웨일리노레방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프라임빅딜데이 파격 할인... 로봇청소기 42% 등

아마존, 8~9일까지 2일 동안
맥북에어·다이슨 청소기 25% ↓
갤럭시 워치울트라도 15% 세일



아마존이 8일부터 이틀간 아마존 프라임빅딜데이를 진행한다. 업체는 할인 폭을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아마존 웹사이트 캡처]

아마존 프라임빅딜데이가 오늘부터 내일(9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이번 가을 빅딜데이는 매년 광고하는 인기 할인 상품에 비전통적인 할리데이 상품을 추가해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2015년 7월 여름 세일로 처음 시작된 프라임데이는 2022년부터 가을 이벤트가 추가됐다.

프라임빅딜데이 세일은 아마존 프라임 회원 전용으로 베스트셀러 상품 대폭 할인 포함 수천개 할리데이 딜 제품을 먼저 살 기회를 제공한다.

아마존 대변인은 “할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조기 할인을 진행한다”며 “10월 할인 행사에 야외 장비, 뒷마당용 도구 및 기타 비수기 제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빅딜데이에 전자 제품, 가정용품, 장난감, 화장품, 의류 등 프라임 회원에게 할인과 수백만 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키친에이드, 삼성, 레고 등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고 인기 브랜드 제품과 생필품 할인을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으로 높였다.

할리데이 시즌 상품이 아닌 대형 TV, 애플 에어팟 외 전기톱, 캠핑 장비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최고 딜은 브레빌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임프레스 에스프레소 머신 700달러(20% 할인), 링 스틱업 시큐리티 카메라 55달러(45% 할인), 아이로봇 룸바 i3+evo 셀프 오토 로봇 버큘 250달러(42% 할인), 애플 13인치 맥북 에어 M2 749달러(25% 할인), 킨들 페이퍼 화이트 에센셜 번들 134.97달러(34% 할인), 아마존 에코 스팟 44.99달러(44% 할인), 다이슨 볼 애니콜3 엣지 트 버큘 클리너 299달러(25% 할인),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550달러(15% 할

인) 등이다.

아마존은 소비자 지출 패턴과 여름 프라임데이 매출 자료를 통해 소비자 구매가 감소세지만 중산층 이상은 여전히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루크 와티의 조지타운대학교 맥도노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는 “저소득층이 음식과 생필품에 지출하는 반면 부유한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여전히 의류, 홈데코에 쓸 여유가 있다”며 “프라임 회원은 후자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구독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할리데이 시즌이 가까워질 때까지 구매를 미루는 소비자보다 가격에

덜 민감하다” 덧붙였다.

아마존이 프라임빅딜데이 할인상품 폭을 확장하면서 대형 매장들도 할리데이 시즌 전 대규모 할인 이벤트에 가세했다.

월마트 할리데이 세일은 빅딜데이 첫날인 오늘(8일) 시작해 13일까지 진행된다.

로우스는 10일~16일 첫 번째 마이로우스 리워드 워크를 발표했다. 회원 전용 이벤트로 마이로우스 리워드 회원에게 가전제품, 홈데코, 할리데이 시즌 상품, 주방 및 욕실 필수품 등 수백 가지 품목을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은영 기자

브리프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 200%”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7일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7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날 위스콘신주 주도 공화당에서 열린 집회에서 “필요하다면 관세를 200%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앞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보다 관세율을 2배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미국에 약 300만대 정도의 차량을 수출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브랜드도 모두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는 11월 5일 대선 앞두고 보호무역적인 언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골드만, S&P500 6300으로 ↑

골드만삭스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대한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6000에서 6300으로 상향 조정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파이낸셜리뷰(AFR)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은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코스틴은 최근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가 2025년 S&P 500 주당 순이익(EPS) 전망치를 기존 256달러에서 268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5년 EPS는 전년 대비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2024년 EPS는 241달러로, 2023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틴은 2026년 EPS 추정치도 새로 제시했으며, 전년 대비 7% 증가한 288달러로 예상했다.

그는 “수정된 EPS 추정치는 2025년과 2026년 전략가들의 기존 합의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S&P 500의 주가수익비율(P/E)에 대해서는 22배 수준으로 적정 가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증시 금리·유가 상승에 하락 국채 10년물 금리 4%대로

고용 호조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증동 분점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7일 뉴욕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8.51포인트(-0.94%) 내린 4만1954.2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 대비 각각 0.96%와 1.18% 하락했다.

고용 호조로 채권 금리가 오르고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한 게 증시에 부담을 줬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8월초 이후 두 달 만에 4% 위로 상승했다.

브렌트유가 한 달여 만에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간 것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주 들어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계산대 없는 미래형 샘스클럽 개장

텍사스 델러스에서 첫선 고객 앱 통한 디지털 결제

텍사스주 델러스에 ‘미래형’ 샘스클럽 매장이 들어선다.

7일 경제 매체 CNBC는 샘스클럽의 모회사 월마트가 토네이도 피해로 약 2년 전 문을 닫은 델러스 지역의 한 샘스클럽 매장을 미래형 매장으로 탈바꿈시켜 재개장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장의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계산대를 100%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결제 앱인 스캔&고(Scan&Go)를 다운로드 받아 디지털로 결제해야 한다. 상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되는 방식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참고형 매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산대에서의 긴 대기 시간을 없애서 쇼핑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체 입장에서 계산대를 없애므로써 그 공간을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샘스클럽 측은 계



이번 달 중순 재개장을 앞둔 델러스 지역의 한 샘스클럽 매장. 계산대를 없앤 공간에 12피트 높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4인용 식탁 세트가 진열돼 있다. [샘스클럽 제공]

산대 자리에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들을 진열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 커브사이드 및 배달 픽업 전용 공간 등을 4배 이상 늘려 디지털 중심 쇼핑 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매체는 메르세데스 벤츠 SUV, 섀션 소파 등 부피가 큰 상품도 매장 내에 진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샘스클럽의 이런 실험적인 매장 오픈은 경쟁 업체인 코스트코와 경쟁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전국 총매장 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매출은 코스트코가 2배 이상 앞선다. 한 업체 관계자는 “쇼핑 경험을 통한 차별화 전략의 강화 목적으로 이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재선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I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샬리스프링 로드 무료 연립주차장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연아빌(h-mart)과 첼러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 MD · DC 면허

- 대원외교 불어/중어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바이든, 허리케인탓 순방 연기

“100년만 최악 폭풍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동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 ‘밀턴’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양골라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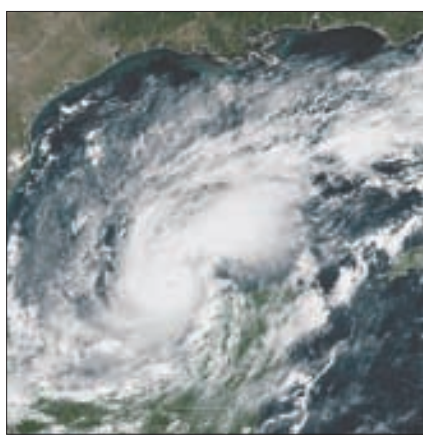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정부의 준비 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언론에 “지금은 출국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15일 독일과 양골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날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의 예상 궤적과 강도를 고려해 준비와 대응을 하기 위해 독일과 양골라 순방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리케인 밀턴은 허리케인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급속 발달했다가 현재는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위력이 상당한 상황이다.

현재 시속 230km의 강풍을 동반해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께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근접하고, 9일 오전 8시께 플로리다반도를 관통한 뒤



7일 허리케인 밀턴의 위성사진 [로이테]

같은 날 오후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밀턴에 대해 “100년 만에 플로리다를 강타하는 최악의 폭풍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연방 정부 대응 규모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하라는 현지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여러분은 이미 대피했어야 한다. 이는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며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항공사와 다른 회사에도 주민 대피를 돕도록 요청했다. 그는 “대피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 가격 폭리를 취하지 말고 평상시 수준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연기한 순방에 대해 “나는 여전히 내가 가겠다고 한 모든 장소와 참여하겠다고 한 모든 콘퍼런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순방 일정이 언제 다시 잡힐지는 불투명하며, 백악관도 이날 추후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방문 기간 현지에서 있는 미군 기지에서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2대 산유국인 양골라를 찾아 경제 협력 및 기후 안보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독일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연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플로리다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당연히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10여개주, 틱톡 상대 소송 “청소년 정신건강 해친다”



미국 10여개 주와 워싱턴DC가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청소년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8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캘리포니아·켄터키·뉴저지주와 워싱턴DC 등의 주 법무장관 연합이 2022년 3월 시작한 틱톡 대상 전국적 조사에서 비롯된 이번 소송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이 중독되기 쉽게끔 설계돼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소송은 각 주 법원에 제기됐다. 소송에 참여한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틱톡이 청소년을 그 플랫폼에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일부 콘텐츠를 제한하지만 청소년

들이 이러한 제한을 쉽게 우회해 성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소장에서 지적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계 회사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연방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틱톡은 4월 미국 사법권을 최장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

러, 우크라 하르키우 유도탄 공격...2명 사망

러시아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를 유도탄으로 공격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30여명이 다쳤다고 올레흐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네후보우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군이 이날 오후 하르키우에 4개의 유도탄을 투하했다고 전했다.

이호르 테레호우 하르키우 시장은 또 민간 생산 시설이 공격받아 불이 났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빈번한 공격 대상이 돼 왔다.



10월 2일 러시아군 공습으로 부서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 아파트 건물 [로이테]

러시아군은 지난달 24일에도 하르키우의 아파트 건물을 공습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고, 지난 2일에도 아파트 건물을 유도탄으로 타격했다.

트럼프, 베트남에 2조원 규모 골프장·호텔 단지 짓는다

베트남 기업과 제휴 하노이 인근에 개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손을 잡고 베트남에 2조원 규모의 골프장·호텔·리조트 개발에 착수한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 ‘킨박시티’(KB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주회사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제휴



도널드 트럼프

해 15억 달러 규모의 골프장·호텔 단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미국 방문 기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단지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인접한 흥옌성에 들어서며, 54홀 골프장 2곳과 여러 호텔·리조트, 주거

복합단지 등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으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수석부사장인 에릭 트럼프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 역동적인 시장에 진입하게 돼 흥분된다”면서 “베트남은 호화 호텔·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측 대표가 지난달 중순 흥옌성을 방문, 성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투자 기회를 논의했다고 흥옌성 정부가 전했다.

“백악관, 한때 러가 우크라이나 핵무기 사용할 확률 50%로 평가”

백악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한때 50%로 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CNN이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전쟁’(War)을 사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10월 그간 첩보를 토대로 러시아가 병력 17만5천명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침공(2022년 2월)을 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차례 화상 대화를 했다.

대화가 격해지면서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의 위협을 위협적인 방식으로 거론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핵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백악관은 2022년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전장 피해에 절망한 나머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이 50%라고 평가했다. 기존에 5%, 10%로 평가했던 가능성이 50%까지 뛴 것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제이크 설리

번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모든 채널로 러시아를 접촉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라”라고 지시했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022년 10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통화했다.

오스틴 장관은 쇼이구 장관이 “난 협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반응하자 “난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의 지도자다. 난 협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은 이를 뒤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더티밤’(dirty bomb·방

사성 물질을 담은 재래식 폭탄)을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핑계로 여긴 오스틴 장관이 “하지 말라”고 하자 쇼이구 장관은 “이해했다”고 답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2014년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불평했다.

자신도 2인자(부통령)로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한 친구에게 “그들이 2014년에 망쳤다”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망쳤다. 버락은 푸틴을 진지하게 여

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푸틴에게 계속하라고 라이선스(허가)를 줬다”면서 “내가 푸틴의 말장 라이선스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드워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통 “내 전임자”라고 칭하지만, 사석에서는 “망할 멍청이”(fucking asshole)라고 부르는 등 욕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방식을 두고 이견을 빚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두고 “비비 네타냐후 그 X자식은 나쁜 놈이다. 그는 빌어먹을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석 5조 통합보험

5 in 1

-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 Life Insurance (생명보험)
-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트럼프에 올인한 머스크...경합주 유권자 설득에 600억 뿌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선거 지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대선 종료 때까지 트럼프의 경합주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고, 트럼프를 지지할 경합주 유권자를 찾는 걸 돕는 이에겐 현금까지 주기로 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7일 약 4주 남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머스크가 경합주를 방문해 트럼프 지지 선거 유세를 벌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특히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재차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5일 트럼프의 7월 피격 장소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선거 유세 때 찬조연설을 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아메리카팩을 통해 현금 지급을 내건 청원 동참자 모집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메리카팩은



지난 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선거 유세 현장에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현재 7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장)와 2조(총기 소지권 리 보장)에 대한 지지 서약을 받고 있다. 서약에 동참하도록 권유한 사람에

게 서약자 1명당 47달러를 주기로 했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머스크도 이날 자신의 소셜 플랫폼 X(옛 트위터)에서 “경합주 유권자 한 명을 추천하는 누구나 47달러를 받는다! 돈 벌기 쉽다”고 썼다. 그는 이 제

안은 앞으로 2주간 유효하다고 했다. NYT는 “47달러 지급은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데 아메리카팩은 7대 경합주에서 등록 유권자 10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머스크는 2억명의 자신의 팔로워에게 이를 알리고 있는데, 100만명 목표가 성공하면 47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미 연방법은 누군가에게 투표하도록 돈을 주거나 투표 등록이나 투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하지만 유권자에게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돈을 주거나 서명하도록 설득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건 불법이 아니다.

결국 이런 청원 운동은 법적 위반 소지를 피하면서도 보수 지지자들을 파악해 그들을 트럼프 지지로 연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청원에 서명하면 서명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우편 주소

및 추천인 정보를 적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메리카팩은 경합주의 보수 유권자 정보를 모을 수 있게 된다.

NYT는 “머스크는 추천이나 입소문이 가장 효과적인 정치 캠페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결제 회사인 페이팔 설립, 테슬라 매출을 늘리려고 할 때도 추천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또 트럼프를 돕기 위해 고용한 유세원 수천 명에 대해 시간당 30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 최고 시세인 시간당 25달러에서 5달러를 더 올린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8월에 트럼프와 X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스페이스에서 대담을 벌였다. 최근엔 자신의 X 계정 프로필 아이콘을 검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이미지로 바꾸고 아메리카팩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추가했다.

이승호 기자

우크라 “북한군, 러에 제공한 탄약 품질 관리하러 우크라 전선 왔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탄약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북한군인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다.

7일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CCD) 소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으로 공급한 탄약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 북한군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코발렌코 소장은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탄약 운송에 동행하면서 발생한 하자를

기록하고, 탄약 배치·보관·사용법을 관찰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시작 이후 북한이 122mm 포탄 500만발을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추산 중이다. 화성-11호 미사일 수습발도 러시아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제 탄약과 미사일은 품질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러시아군이 북한제 탄약을 운용하다가 총이나 박격포가 망가지거나, 운용인력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혀왔다. 북한산 미사일 역시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도

중에 추락 또는 공중 폭발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고 한다.

키이우포스트는 “지난 3일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군과 함께 사망한 북한군 6명은 탄약 품질관리팀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매체는 이들 북한군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군과 전투 경험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도 북한이 탄약과 미사일 공급 외에 정교군 파견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

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교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상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산 무기의 품질이 열악해도 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군 관련 웹사이트인 ‘우크라이나 군사 센터’는 “(북한산 무기의 품질이 떨어지긴 해도) 우크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불타고 있는 러시아군 탱크. [로이터·연합뉴스]

이내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북한은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에서) 미사일 시스템과 위성, 탱크와 항공기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초밥 담아 먹었는데... ‘암 유발 주의’ 경고 나온 접시 뭐길래

배달 음식 포장 용기나 조리도구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이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환경 및 건강 연구단체인 ‘독성물질 없는 미래(Toxic-Free Future)’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U)가 발표한 연구를 인용해 검은색 가정용품 20개 중 17개 제품에서 난연제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특히 초밥 접시, 구슬목걸이, 주방 도구 등 검은 플라스틱 재질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여행용 게임, 장난감 등에서도 발암 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검은색 플라스틱에는 암 유발 및 호르몬 교란 물질인 난연제가 들어 있다. 난연제는 연소 저항력을 높이고 화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제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이다.

전자제품에 들어간 플라스틱이 가정

용 제품 제조에 재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메간 리우 ‘독성물질 없는 미래’ 정책담당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난연제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난연제는 첨가된 폴리머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 공기 중으로 스며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열 플라스틱 주방 도구를 가열하면 음식을 통해, 어린이가 장난감을 빨면 침을 통해 체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환경 보호청은 일부 난연제가 갑상선 문제, 생식 기관 합병증, 신경독성 및 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주의력 지속시간 장애, 운동 능력 저하, 인지 발달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화학협회의 북미 난연제 연합은 “제조업체는 난연제가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엄격한 연구와 위험 평가를 한다”면서도 “해당 보고서는 난연제의 위험을



주장하지만 실제 잠재적 노출 수준이 사진은 안전성 부적합 폴리스티렌 용기. [사진서술시 제공]

나 경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조앤김)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무료신청]

1959, 1960년생이신 분들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약값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LIS 신청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상담 내용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10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주세요.

급매

\$69만
우드브리지
니콜라
상급층
방4+
화3 차고2

\$56만
달링턴 콘도
방2개 28평
과용층은 페트로프의 연립
타운하우스 콘도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릭빌 \$3,500 방3+/화3 차고 1

페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분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분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분~\$60만분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분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역 부근 \$63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상대 후보 비틀거리자 달려갔다... “괜찮나” 물은 앤디김 화제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토론에서 공화당 의원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연단에서 쓰러지려고 하자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뉴저지)이 지체 없이 뛰어가 “괜찮나”고 묻는 등 신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7일 토론을 주관한 지역매체 뉴저지 글로벌에 따르면 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바쇼 후보는 오는 11월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6일 오후 8시 첫 TV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이다.

경쟁자인 공화당 바쇼 후보는 정치 경력이 없는 호텔 및 부동산 개발업 사업가 출신 인사다.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바쇼 후보, 앤디 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AP=연합뉴스]

이날 바쇼 후보는 뉴저지주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 문제에 관한 첫 질문에 답을 하려던 중 갑자기 말을 멈추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바쇼 후보는 서 있기조차 힘든 듯 강연대를 붙잡고 비틀거렸다.

상대 후보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알아차린 김 후보는 바쇼 후보 자리로 달려가 강연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괜찮나”고 물었다.

진행자는 곧바로 토론을 중단시켰고 바쇼 후보는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토론장 밖으로 나간 뒤 약 10분 후 토론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응급 의료진이 출동하자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토론회는 한 차례 더 중단되기도 했다.

바쇼 후보는 토론장에 돌아와 “생활비 문제에 너무 집중하느라 오늘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농담을 던진 뒤 “여러분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토론은 다시 본궤도에 올랐고 두 후보는 세금, 낙태, 이민자 주요 이슈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후 바쇼 후보는 토론회 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루 종일 유세하느라 정신이 없어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후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바쇼 후보가 겪은 건강 이상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뉴저지 주민들에게 제가 어떤 상원의원이 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치지 않고 어떻게 노력할지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지난 6월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줄곧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거머쥔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민주당 후보인 김 후보의 상원 진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영 기자

“ㄱ ㅈ ㅊ” 쓴 500년 전 훈민정음 중국어 표음 더 정확

심소희 이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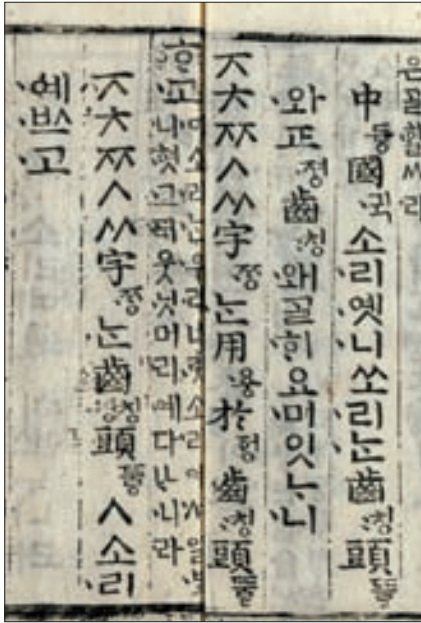
치두음·정치음으로 외국어 표음 “동아시아 500년 언어사 기록한 셈”

지난 4일 만난 이화여대 심소희(60) 교수는 전공이 중어중문학인데도 한글을 연구한다. 그것도 옛 한글이다. 심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훈민정음 언해본을 펼쳐 ‘ㄱ, ㅈ, ㅊ’, ‘ㅅ, ㅆ, ㅌ’ 글자를 보여줬다.

ㄱ(지읒), ㅈ(치읓), ㅊ(치읓) 좌우 획 중 왼쪽이 늘어진 것은 혀끝이 윗니 뒤에 닿는 얽은 소리인 치두음(齒頭音), 오른쪽이 늘어진 것은 혀끝이 아랫잇몸에 닿는 두터운 소리인 정치음(正齒音)이라고 불리는 옛 한글 자모란다. 심 교수는 쓰지 않는다고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옛 한글에 주목할 때”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가 처음부터 한글을 연구했던 건 아니다. 석사과정에서 성운학을 배우며 한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가 우연히 훈민정음을 접하면서 한글의 우수성과 매력에 빠졌다. 심 교수는 “중국은 1958년이 돼서야 표음 체제가 확립됐지만, 불안정하다”며 “500년 전 집현전에서 발음 부위와 방법 등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한 표음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고서에 있는 옛 한글에 주목한다. 그중 연구 가치가 높은 고서는 훈민정음 언해본



정치음 등 외국어 발음 방법이 적힌 훈민정음 언해본이 담긴 월인석보. [사진 국립한글박물관]

과 역관을 위한 중국어 교본 노걸대(老乞大). 특히 훈민정음 언해본 사본은 페이지가 너털거릴 정도로 봤다.

한글의 우수성은 외국어 발음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한글 창제 당시 만든 28자로는 한계에 부딪치자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치두음과 정치음이 등장했다. 만주어를 표음하기 위해 ‘ㄱ, ㅈ, ㅊ’ 등이, 일본어를 표음하기 위해 ‘ㅇ, ㅅ, ㅆ’ 등이 제작됐다. 심 교수는 “한글의 장점은 기존 문자를 활용해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규 기자

‘AI의 아버지’ 힌턴, 노벨 물리학상

존 홉필드 교수와 공동수상 힌턴, 딥러닝 개발 ‘AI 혁신’ 일으켜 홉필드, 신경망 개념 정립 기초 마련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은 21세기 첨단 인공지능(AI) 기법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토대를 닦은 존 홉필드(91)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턴(76)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이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 “이들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가능케 하는 기반 발견 및 발명’과 관련한 공로를 세운 점을 높게 평가했다”면서 “이들은 물리학적 도구를 이용해 오늘날 강력한 머신러닝의 기초가 된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000만원)가 수여된다.

존 홉필드는 1980년대 초반에 자신의 이름을 딴 ‘홉필드 신경망(Hopfield Neural Network)’을 제안하며 신경망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립한 학자다. 인간 뇌의 뉴런 활동을 모방해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프리 힌턴은 영국 출신으로 21세기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학자다. 홉필드 교수의 신경망 연구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 힌턴 교수는 특히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개발, AI 빙하기를 깨고 21세기 AI의 혁신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의 딥러닝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로 알려진 것은 2012년 열린 국제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에서였다. 힌턴 교수의 제자로 구성된 수퍼비전팀이 딥러닝 기법을 활용, 탁월한 성적으로 우승해 화제가 됐다. 당시 수퍼비전팀은 영국 옥스퍼드대, 일본 도쿄대, 독일 예나대, 제록스 등의 유명 연구기관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압도적인 차로 누르며 우승했다. 다른 팀이 50%대에 불과한 소수점 공방을 벌일 때 수퍼비전팀은 15%대를 기록했다. 50여 년 역사를 가진 AI의 혁신을 불러온 딥러닝의 화려한 등장이었다.

앨런 문스 노벨 물리학 위원회 의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이미 큰 혜택을 가져왔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특정한 특성을 지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머신러닝은 엄청난 혜택을 가져왔지만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려 역시 불러일으켰다. 인류는 이 신기술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인류의 최대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딥러닝의 창시자인 힌턴 교수 역시 AI의 빠른 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AI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구글에 사표를 낸다면서 “AI의 악용 시도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AI 기술이 적용된 킬러 로봇이 현실이 될까 두렵다고도 했다.

힌턴의 딥러닝 기법은 한국 사회와 기업에 빠르게 흡수됐다. 인공지능의 료진단 스타트업 루닛의 백승욱 의장은 “2013년 창업할 때 힌턴 교수의 제자 팀 중 한 명이 딥러닝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기술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딥러닝이야말로 그간 우리가 연구해 오던 것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힌턴 교수는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에도 관심을 표했다. 그는 2016년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의 일부 연구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랐으며 교육 분야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학자들을 압박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딥러닝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최준호 과학 전문기자, 논설위원



2024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교수(왼쪽)와 존 홉필드 교수. [AP-AFP=연합뉴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시민도 원하면 응급헬기 태워주나” 이재명 특혜 논란 재소환

여야, 정부·복지위서 잇단 공방
명품백 의혹 조사 종결 외압 논란
권익위 부위원장 “야당 고발” 충돌도

김여사 논문 대필 의혹 교수에
교육위, 야당 주도 동행 명령장



천준호 민주당 의원(왼쪽)이 8일 국감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시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이름이 국감장 곳곳을 뒤덮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 “검찰의 명품백 무혐의 결정은 공직자에게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전현희 의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검찰 조사 과정에

서 김 여사도 BP(블랙벨) 패밀리라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

혹으로 맞섰다. 앞서 경찰은 이에 대해 두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에선 개의 30분 만에 여야가 거칠게 충돌하며 파행이 빚어졌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야당 의원 고발” 발언을 놓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명품백 의혹 조사’를 종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정 부위원장에게 “사직하면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맞나”라고 묻자 정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9월 권익위 전위원회

에서 “일부 언론에서 (권익위 전 부패 방지국장) 마찌 명품가방 사건으로 합들어다 사망했다고 조작 보도를 했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질의였다. 야당에선 “국회를 위협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여당 소속 윤한홍 위원장은 야당 의원에게 “나가세요.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 아니냐” 등의 고성으로 지르다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으로 맞불을 놓았다. 권성동 의원은 “부산대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잉 진료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습격을 당한 뒤 응급의료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윤지원·강보현 기자**

이상식, 본인 수사 경찰 증인요청... 비판일자 하루만에 철회

(선거법 위반)

증인채택 이후 “방탄 국감” 논란
이상식 “소명된 부분 있어 철회”

이상식(조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셀프 방탄 국감” 논란이 거세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김종기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지능

범죄수사팀 실무자 2명에 대한 증인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당초 7일 행안위 국감에서 ‘피의 사실 유포 및 미체포 피의자 수갑 착용’을 이유로 김 서장과 수사 실무자 2명을 경기남부경찰청 국감(14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때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낮추는 등 재

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고, 이날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고, 경찰 내부의 피의사실 유포가 심각한 내용이라고 모른 채하고 가야 하나. 그렇게 못 한다”



이상훈·성지원 기자

며 증인 채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를 겁박하려고 증인을 채택한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것이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증인 채택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단독으로 경찰 증인 채택안이 의결됐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수사가 아니라 인권 유린에 대한 증인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보복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후 “경찰이 과연 국회의원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과 함께 방탄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사전 소명된 부분이 있으며 증인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물러섰다. **이상훈·성지원 기자**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에 이복현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

(금감원장)

관련 종목에 ‘소비자경보’도 발령
발표 직후 고려아연 주가 출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과열 양상으로 치닫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했다고 금감원이 8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매수 기간에 경고에 나선 것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경쟁 과열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양측은 “상대방이 공개 매수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다툼은 물론 금감원 신고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원장은 임원 회의에서 “공시 이전에 공개 매수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 등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

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살펴본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혹은 종료 이후에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소식에 8일 관련 종목의 주가는 출렁였다. 고려아연은 해당 소식 직후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4% 가까이 빠졌다. 이후 회복에 나서 0.51% 하락한 77만6000원에 마감했다. **김남준 기자**



이복현

최태원, 100조 에너지기업 출범 앞두고 중동 찾는다

(SK이노·E&S 합병)

사우디 왕세자·UAE 대통령 만날 듯
유기불안 속 정유산업 공조 다지고
HBM 등 AI 사업 협력 논의 가능성



진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최근 정제마진은 하락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4.3달러까지 올랐던 정제마진은 지난달 들어 2.1달러까지 떨어졌다. 경기 침체로 석유 제품 수요

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여기에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 공격 강도가 심화하면서 국제유가도 상승세다. 글로벌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7일 기준)은 한 달 만에 배럴당 17% 뚝 80.93달러(약 10만9190원)로 올랐다. 이 분위기라면 연말에는 100달러(약 13만5870원)까지 오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원유 값은 오르고 정제마진은 떨어지면서 SK이노베이션 실적은 부진하다. 증권업계에선 SK이노베이션 3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하락한 31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재계 관계자는 “합병 기업이 출범하자마자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유가격이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SK 그룹에 원유공급처인 중동 주요 국가와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Financial Group



메디케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티모시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1959년~1960년생)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플랜)
-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 처방약 절약이 필요하신 분들 (LIS)

파트 A & B / 파트 C (어드밴티지) / 파트 D (처방약)
메디캡 (서플먼트) / 듀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연금 보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평생 연금으로 고객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계획해드립니다!

각 고객에 맞는 연금보험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 암 보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보험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진단!



티모시유 보험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우리말 바꾸기

‘본뜬’

요즘 광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가상 인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연예인 대신 가상 인간을 모델로 뽑아 홍보 활동을 하기도 한다.

무언가를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좇아하거나 이미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좇아 만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본뜨다’이다. 그런데 이 ‘본뜨다’를 활용할 때 ‘본뜬’으로 써야 하는지, ‘본뜰’으로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활용형이 ‘본뜬’이 되려면 기본형이 ‘본뜨다’여야 한다. 그러나 ‘본뜨다’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따라서 ‘본뜨다’를 활용한 ‘본뜰’이 맞는 표현이다.

“알파고, 인간 뇌의 신경망 본뜬다” “연구진은 뉴런의 구조적 특성을 본뜬다” 등에서와 같이 ‘본뜨다’를 과거형으로 활용할 때 역시 ‘본뜨다’와 ‘본뒀다’ 둘 중 어느 것을 써야 할지 아리송하다. ‘본뒀다’는 ‘본뜨다’의 활용형이다. ‘본뜨다’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뒀다’ 또한 틀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본뜨다’를 활용하면 ‘본뜰’ ‘본뒀다’ 등이 되므로 과거형으로 쓸 때엔 ‘본뒀다’고 해야 바르다.

기본형이 ‘본뜨다’인지 ‘본뒀다’인지 헷갈리면 ‘본뜨다’가 “본을 뜨다”에서 온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본’과 ‘뜨다’가 합쳐진 말이 ‘본뜨다’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시론

대한민국 위상과 한인 차세대



장태환
UC리버사이드 교수
김영욱재미동포연구소장

실로 놀랍다. 20세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조선은 멸망했고, 1910년부터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수탈을 당했다. 또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는 이등 시민으로 살아야 했다.

이후 해방이 되었지만 강대국들의 정치 논리에 휩싸여 분단국가가 되었으며, 이어 6·25 한국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세계 최빈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원조로 겨우 연명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은 이제 영국,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6대 강국으로 발전했다.

그런데도 일부 장년층과 노년층은 아직도 일제 강점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1970~8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절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우세했다. 그만큼 일본과의 격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 강국 지표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선다는 발표도 나왔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는 아직 거리가 있다. 아직도 일본은 과거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극우세력은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일부 학자와 정치인이 일제 강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을 길러 사과를 받으면 된다. 도산 안창호는 모든 분야에서 힘을 길러 일본을 이겨야 한다고 했다. 도산의 그런 바람이 차츰 현실이 되는 것 같다.

필자는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과 당당히 경쟁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만간 일본을 앞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20~30대의 양국 젊은층은 서로 호감을 가진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앞으로 한·일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과 일본이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은 미국의 한인 차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에게 ‘미주 한인’ 또는 ‘코리아인 아메리칸’ 정체성을 심어주는데도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에 넘치는 한인 차세대들이 미주 한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 아침에

첫 운전



이리나
수필가

어렵지 않았다. 처음에는 액셀레이터를 깊게 밟지 않고 거의 브레이크만으로 직진과 후진을 했다. 비상등을 켜보고 사이드와 룸미러로 주변도 둘러봤다. 앞으로 가는 것에 익숙해지자, 좌회전과 우회전과 유턴을 했다. 하지만 항상 한 바퀴를 돌고 서 있는 곳은 대형 쓰레기통 옆이었다.

뒤로 가다가 ‘이제 쓰레기통이겠지’ 하면 너무 늦었다. 여러 번 가장자리에 세워둔 철제 쓰레기통을 들이박았다. 쓰레기통에 묻은 차의 페인트를 보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어차피 들통날 일이니, 혼날 것을 각오하고 집에 가서 이실직고했다.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어깨가 다

빠근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갔다. 사달은 다음 날 일어났다. 아침에 크라이슬러 르브론을 살피던 아빠가 곤히 자는 나를 깨웠다.

“이리 나와.” 화난 아빠를 거의 본 적이 없지만 이날은 예외였다. 밝은 날에 보니, 쇠로 만든 차 범퍼는 텐트나 흙집 정도가 아니라 여기저기 찌그러졌다.

“쓰레기통을 박았다고? 가만히 있는 쓰레기통은 왜 박았니? 파킹랏 맨 끝에 있는 쓰레기통이 와서 부딪치던?”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차 옆문은 어디서 박은 거야. 그것도 쓰레기통이니? 아무튼 기술도 좋다.”

차 문을 열지 않는 이상 직사각형의 쓰레기통에 조수석 프런트 도어가 박혀서 찌그러질 일은 없었다. 이것은 운전 기술이 매우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난 그 일을 해냈다.

어두운 구석에 위치해서 까만 밤에는 잘 보이지 않도록 위장하고, 완강한 공격에도 꿈쩍하지 않은 탱크 같던 나의 맞수. 그날은 쓰레기통의 완승이었다.

최근에 나온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차는 차량 자체가 면허를 소지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석에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차를 소유하지 않는 이상, 아직도 운전 면허증을 가져야 차를 운전한다.

운전을 하지 못하니 항상 아빠가 학교와 직장으로 라이드와 픽업을 했다. 서로 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두어 시간씩 먼저 가서 기다리곤 했다. 그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다. 나의 자유를 위해 또 중고라도 내 차를 갖고 싶은 열망에 운전 면허증이 꼭 필요했다.

마침내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 퍼밋을 받았다. 서너 번 아빠와 운전 연습을 한 경험이 전부였지만, 어느 날 밤에 천천히 차를 몰고 집 근처에 있는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으로 향했다. 1980년대에 그 백화점은 지금의 메이시스 정도로 컸고,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처럼 넓었다. 그날 밤은 주차 공간에 환한 전등불만 켜있었고 다섯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는 운전은 그리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부
8. 크레딧 리부, 관리 방법

-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욕 3, 2리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슨 대학, 트윈부룩을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핫워터탱크, 새 마루, 새 카펫 (지하 방, 풀바스, 우드 fireplace) 산물, 파리오, 워그아웃
- **풀스치치 콘도 \$249,900**
방 1, 욕 1, 전채 리모델링, 495/66/50, 모자이크, 단로빙메트로
- **스프링필드 벽돌 다운 렌트 \$3,200**
방 3, 욕 3.5, 차고, Rolling Rd/286/95/495, Fort Belvoir
- **센터빌 터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대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당위나 강요 아닌 돈이 사람 움직이는 힘”

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정말 오랜만에 최태지(65) 전 국립발레단장을 만났다. 철갑통 문화 탓에 복지부동하는 공무원·공무직(무기계약직)이 점점 많아져 공직사회가 골머리를 앓는다거나, 고령의 저성과자들에게 일 시킬 방도가 없어 대기업들이 골치를 썩인다는 류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늘 최 전 단장이 떠올랐다.

최태지. 존재감 없던 한국 발레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예술가이자 지도자. 하지만 지난 2021년 광주 시립발레단장을 끝으로 지금은 아무 공식 직함이 없다. 그런 그가 계속 생각나고 결국 그를 불러낸 건, 최 전 단장이 단 순히 발레를 발전시킨 발레계 전설이 아니라 몸담았던 곳마다 별다른 잡음도 없이 혁신과 개혁을 이뤄낸 뛰어난 행정가라사다.

학연·지연은커녕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 교포 2세로 고작 30대 나이에 파격적으로 국립발레단장에 올랐으니 뒷세에 일찌감치 무너졌을 법도 한데, 오히려 두 번에 걸쳐 12년 동안 국립발레단장을 맡아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2017년 광주 시립발레단장으로 갔을 때도 호남 태생 아닌 그를 두고 다들 “아무리 서울에서 지명도가 있어도 동태에선 배타적 정서에 1년도 못 버틸 것”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최태지가 누군가. 예술가라는 정체성보다 언급만 바라보는 공무원 조직처럼 늘어가던 단체를 다시 본연의 ‘젊은 예술’하는 발레단으로 돌려놓았다. 임기를 넘치게 채운 것은 물론이다.

정치뿐 아니라 스포츠계 내분, 의·정 대립 등 온 사회가 극단적 갈등으로 대립하는 지금 여러 단체를 거치며 조용한 개혁을 척척 일궈온 그에게 들을 얘기가 많을 거 같았다. 역시 기대했던 그대로였다. 지난 8월 7일 4시간 동안 들은 인생 이야기를 그의 시각에서 정리했다.

개혁은 말 아닌 돈

발레리나 은퇴(1993) 후 국립발레단에서 지도위원 하던 지난 1996년 서른 일곱 나이에 갑작스레 국립발레단장이 됐다. 전임 김혜식(82, 당시 54세) 원장보다 무려 열일곱 살 젊어진 파격 인사였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프리마(주역) 발레리나 출신 최연소 단장이라는 타이틀은 하늘로 솟구칠 가벼운 날개가 아닌 자꾸 바닥으로 꺼지는 무거운 짐이었다.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주위의 뼈박한 시선

속에 뭐라도 빨리 새로운 걸 보여줘야 했다.

그렇게 내놓은 게 소극장 무대 ‘해설이 있는 발레’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찾아가는 발레’였다. 특히 ‘해설이 있는 발레’는 시작하자마자 평균 객석 점유율 219%(454석 극장에 996명이 몰려 로비에서 모니터로 관람)라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면서 발레 대중화와 스타 발굴 무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마침 각각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학교와 볼쇼이발레학교를 막 마치고 온 당시 스무 살 안팎의 김지영·김주원이 입단해 엄청난 관객몰이를 하자, “국립발레단이 스타 마케팅만 몰두한다”는 시기 섞인 뒷말도 나왔다. 하지만 정반대다. 스타가 아니라 나머지 70여 명 단원 챙기려 한 시도였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돈 때문이었다.

발레는 나이 먹어 경험 쌓인다고 더 좋아지지 않는다. 평생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당시 국립극장 산하단체다 보니 공무원식 연공서열 호봉제에다 주역이든 군무든 실력이나 공연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값싼 공연 수당을 책정하고 있었다. 기껏해야 1년에 세 작품 올리는데, 공연 수당은 무대에 내내 서는 프리마나 잠깐 등장하는 군무 제작(공연)보다 껌밥(개인 레슨)에 더 관심이 많았다. 심지어 일부 단원은 진단서 때면서까지 어떻게든 무대에 안 서려고 했다. “개인 레슨 하지 말라”고 해봐야 들을 리 없었다.

인센티브가 필요했다. 그게 ‘해설이 있는 발레’고 ‘찾아가는 발레’였다. 연 150회 공연하며 개인 레슨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여주니 다들 자발적으로 공연에 집중했다.

이때 확실히 깨달았다. ‘프로페셔널리즘은 곧 돈’이라는 간단한 명제 말이다. “열심히 하라”는 당위나 “이러면 자른다”는 식의 강요·협박이 아니라 일한 만큼 성과만큼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직업적 전문성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이 토대 위에 개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개혁은 마음 얻기

돈의 위력은 2000년 국립발레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더 뼈저리게 실감했다. 처음엔 독립이 뭔지 몰랐다. 알고 보니 직접 벌여 먹고살라는 얘기였다. 가만 앉아 얻어지는 건 단돈 1원도 없었다. 작품 하나 무대에 올리려 해도 돈, 전부 돈인데, 돈이 없었다. 예산을 뭘 기획재정부 청사 복도에 죽이다



말 서툰 재일 교포 무용수 출신 학연·지연 없지만 간 곳마다 성과 내치지 않고 돈과 자존심 지켜줘 믿음 주고 기다리니 따라오더라

지난 8월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을 만났다. 그가 지금껏 해온 잡음 없는 개혁 이야기를 듣고 싶어 보였다. 김현동 기자

만난 말단 공무원이든, 협찬 준다는 기업 관계자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돈만 따올 수 있다면 국립발레단장이라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그 앞에서 90도로 몸을 숙였다.

그때 모두들 국립발레단의 위기라고 했으나 역시 겁이 났지만 발상을 바

꾸니 기회로 다가왔다. 돈만 있으면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내 결정대로 뒤통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0년 넘게 볼쇼이 예술감독을 한 ‘살아있는 전설’ 유리 그리고로비치(97)를 안무가로 초청해 ‘스파르타쿠스’ 등 대작을 하나둘 소화했다. 그 결과 발레단 전체의 클래식 발레 역량뿐 아니라 개별 무용수들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이는 유료 관객 증가와 무용수 해외 진출 성과로 돌아왔다.

시스템 정비도 이어갔다. 2001년엔 최종학력과 연공서열 우선인 호봉제를 없애고 해외 우수 발레단이 하듯 기여도와 예술적 역량 평가에 따라 연봉을 책정했다. 과거엔 김지영·김주원처럼 기량이 월등히 좋은 젊은 유학파들이 발레학교 학력 인정을 못 받아 한국서 대학·대학원 나온 고령의 단원보다 더 무늬없이 낮은 연봉을 받았다. 이걸 바로잡으니, 젊고 실력 있는 발레리나들이 “정당한 보상 받으며 무대에 설 기회가 있다”며 앞다퉈 지원했다. 또 2009년엔 역할·기량·시간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공연 수당을 5만~40만원 차등 지급했다.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판을 깔아주니 내가 굳이 뭐라 하지 않아도 단원들끼리 건강한 경쟁을 했고,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됐다.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건 단원들 마음이었다. 난 돈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놨지만, 단원들은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상처받아 반감이 생기면 아무도 안 따른다는 걸 알아서다. 가령 연봉제를 도입할 땐 최소한 호봉제 시절보다 연봉이 더 적어지지 않도록 했다. 새로 들어온 후배보다 기량이 떨어지는 선배를 타박하지도 않았다. 대신 무대 기회를 더 줘서 스스로 자기 기량을 깨닫게 했다.

개혁은 기다림

이런 경험은 광주 시립발레단장 때 큰 도움이 됐다. 국립발레단에선 한해

100억원 넘게 썼는데 처음 오니 4억원(인건비 불포함)이 전부. 공연 올릴 업무가 안 났다. 돈보다 사람은 더 문제였다. 철갑통 호봉제인 데다 일반 사무직과 똑같이 정년 60세 공무원 신분이라 근속 20년 채워 연금 받으려고 버티는 40~50대 단원 비중이 꽤 컸다.

발레는 젊은 예술, 보여지는 예술이다. 나이 들수록 체력적, 테크닉적으로 기량이 떨어지는 걸 스스로 안다. 무대에 설 체형에서 떨어진다든 것도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국립발레단은 연봉제로 경쟁 체제 만들고 은퇴 단원 제도를 뒤 기업 임금피크처럼 2년 동안 나갈 준비를 시켜 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최고라는 자부심이 커 단원 대부분 자존심을 못 지킬 만큼 버티진 않았다.

광주 시립발레단은 정반대였다. 버티는 문화가 팽배했다. 한마디로 열심히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서울에서 힘들게 좋은 선생님 모셔와도 근무(연습) 시간 끝나는 오후 4시면 전부 칼퇴근이었다. 남아서 더 배우고 싶은 단원도 있었겠지만, 선배들이 “왜 남느냐”며 스트레스 주고, 노조 눈치 보느라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런 모습에 “관두겠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일부러 노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 안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또 마땅한 노후 보장 없는 상황에서 매달 나오는 연금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갔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가지를 우선 챙겼다. 돈과 자존심. 다행히 명예퇴직 제도가 도입돼, 나가는 단원에게 연금만큼 챙겨줄 수 있었다. 또 단원들 앞에선 ‘국립발레단’의 ‘국’자도 입에 올리진 않았다. 국립발레단을 언급하는 순간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다렸다. 몸이 안 되고 기량 떨어진다고 배제하는 대신 오히려 추추(발레복) 입혀 무대에 오르게 했다. 어쩌면 무대에 서는 기쁨보다 민망함이 더 컸겠지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준 셈이다. 단원 40여 명 절반 가까이 골골이됐고, 노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만약 왕따 단원 생활과 지도위원 경험 없이 곧장 단장을 했으면 성과를 못 냈을 거라는 걸 알기에, 발레 아닌 분야에 조연하긴 조심스럽다. 하지만 진정 믿고 기다려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누군가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안혜리 논설위원



1 국립발레단 프리마 발레리나 시절 ‘호두까기인형’ 공연 중인 최태지 전 단장. 2 볼쇼이 예술감독을 30년 한 유리 그리고로비치(왼쪽)를 초청하기도 했다. 3 국립발레단장에 두 번째 왔을 땐 노조가 있었지만, 갈등은 없었다. [중앙포토]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시 설

한 달이면 탄핵? 검찰은 '명태균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자칭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명씨는 그제 밤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해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하겠나"라고 검사에게 물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함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함부로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 겁박이다. 기가 막히는 얘기다. 도대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개 정치 브로커에 불과한 명씨가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운운한단 말인가.

이와 관련, 최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씨가 20대 대선 직전 3억 6000만원 상당의 여론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 탄핵·하야 거론에 국민 경악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사실이면 중대한 위법 대통령 부부의 허술한 주변 관리 해명하고 자성해야

조사를 무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대가로 2022년 6월 창원시장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윤석열 캠프가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45조1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20대 대선 뒤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엔 명씨가 실시했다는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돈 거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데, '무상 여론조사'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였다면 선거법 47조2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검찰은 2022년 6월 창원시장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영선 전 의원을 후보로 결정

한 경위도 샅샅이 살펴야 한다. 수사의 법적 요건상 필요하다면 대통령 부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명씨는 또 다른 인터뷰에선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천거하는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 뒤 명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했지만, 올해 초에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으니 용산의 해명을 그대로 믿긴 어렵다. 검찰이 명씨 수사를 대충 넘겼다가 또 다시 야당의 특검 공세에 시달릴 게 뻔하다. 탄핵을 거론한 명씨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 윤 대통령 부부의 허술한 주변 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전력이 있다. 이런 인사를 경계도 하지 않고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으니 뒤말이 난 것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도 어이가 없다. 그는 서울 의소리 기자에게 "용산에 심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며 "(김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폼다 하며 시켜먹는다"고 말했다. 좌파 매체에다 서슴없이 영부인 협담을 하는 수준의 인사가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된 건가. 이런 게 다 결국은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명씨와 관련된 사안의 진상을 진술해 해명해 국민의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길 바란다. 또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통령 주변 관리를 강화할 대책도 시간만 끌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삼성전자 실적 쇼크, 신기술 경쟁력의 복원 서둘러야

반도체 위기론 속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석 달 사이 주가가 30%가량 하락하며 '5만 전자'까지 밀린 데 이어,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주가 하락과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에 경영진은 이례적으로 실적 부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냈다.

삼성전자가 어제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기 대비 6.66% 늘어난 79조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12.84% 줄어든 9조 1000억원이었다. 이미 하향 조정됐던 시장 전망치 10조 원대를 밑돌며 주가는 약세를 이어갔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순매수액도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시가총액 비중도 2년 만에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삼성전자가 맞은 위기는 인공지능(AI) 혁명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제대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탓이다. AI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서 SK하이닉스 등 경쟁 업체에 뒤처진 데다, 엔비디아 납품도 늦어지고 있다.

부동의 1위였던 D램 시장의 지위도 흔들리며, 메모

리반도체 1위 자리도 내놓을 수 있다는 우울한 진단까지 나온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고전 중이다. 대만 TSMC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TSMC(62.3%)는 2분기 삼성전자(11.5%)와의 점유율 격차를 50.8%포인트로 더 벌렸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위기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인 만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전영현 반도체부문(DS) 부문장의 다짐대로 삼성은 빠른 혁신을 통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과 제도 마련을 비롯,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야 한다.

레바논도 천년 낙원이었다



고정애의 시사각각 時視各角

도 침공했다. 내전 동안 10여만 명이 숨졌고, 그 이상이 다쳤으며 수십만 명이 망명길에 올랐다.

1990년 마침내 '평화'가 왔으나 진정한 건 아니었다. "결코 시정되지 않을 부정의와 잔혹 행위에 대한 기억들은 평화가 선언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레바논의 많은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다. 화해와 망각,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맹렬한 욕구가 결합되면서 레바논 사람들은 다시금 한 국가의 국민인 척 행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레바논인들이 국가에 더욱 헌신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레바논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분쟁의 위협을 결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불안한 나라가 돼 있었다." (유진 로건의 『아랍』)

길게 썼다. 레바논은 분명 극단적 사례다. 대단히 복잡한 배경이 있다. 그러

1300년간 안정적 다종교 사회가 종파 갈등에 일순간 나락 떨어져 심리적 내전 상태인 우린 안전한가

나 1300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사회도 '일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엔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내전 초기 레바논 사람들은 "머칠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역사는 냉담했다.

비교적 최근까지 우린 '결국엔 나아질 것'이란 낙관을 공유했고, 대체로 나아져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나 이재명의 민주당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민망할 일들을 버젓이 실행에 옮기는 통에, 최악이 최악을 부르고, 초유의 일이 또 다른 초유의 일을 밀어내는 걸 상시적으로 보게 되면서 더는 낙관하기 힘들게 됐다. 다음 정권 때 나아질지도 회의적이다. 과거의 퇴행을 바로잡겠다고 들어선 정권들이 연이어 퇴행하고, 다음 정권을 노리는 이들도 퇴행하니 말이다. 자칫 나락이 아닌지 두렵기까지 하다.

레바논을 겪은 탈레브는 소수가 우리가 가는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며 이렇게 조언한다. '은율(나에게 하기 싫을 걸 남에게 하지 말라)'을 깨는 이들을 불관용해야 한다고. 조안대라면 불관용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oongAng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Advertisement for JoongAng Ilbo digital newspaper. Features a QR code, the text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View JoongAng Ilbo Washington Digital Newspaper), and a person pointing to the QR code with the text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Newspaper in my hand! Convenient anytime!).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October 9,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늦게 알아 손 못쓰는 폐암, 국가검진으로 조기 발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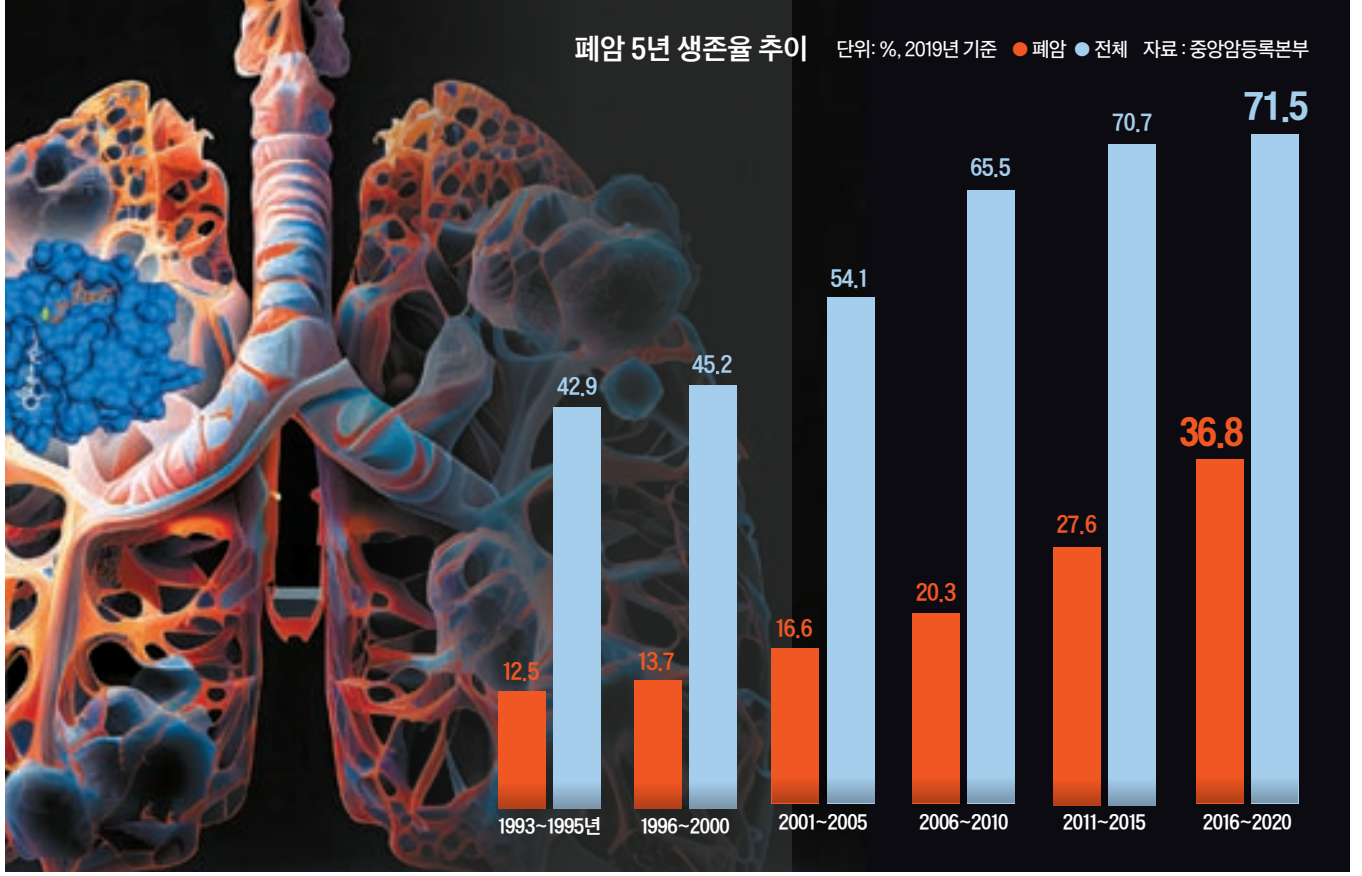
2021년 폐암에 새로 걸린 사람은 3만 1616명이다. 폐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38.5%(2021년)이다. 폐암에 걸리지 않은 동일 조건의 일반인에 비해 5년 생존율 확률이 38.5%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022년 폐암으로 숨진 사람은 1만 8584명이다. 암 사망률 1위가 된 지 오래다. 폐암 치료법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서운 암임이 틀림없다. 2020년 기준으로 10만255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떤 암이든 간에 일찍 찾아낼수록 치료가 잘 되고 생존율도 올라간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폐암 환자 100명 중 암세포가 멀리 있는 다른 장기로 번진 '원격 전이'가 42.4%에 달한다. 림프샘 등의 주변 장기로 퍼진 '국소 전이'가 25.2%, 폐에만 암세포가 있는 '국한 상태'가 24.7%이다(나머지는 모름). 원격 전이 환자로 발견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조병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폐암센터장은 "신규 폐암 환자 10명 중 6명이 4기까지 약화한 후 발견된다"고 말한다. 4기이던 간이나 뼈에 전이됐고, 심하면 뇌로 번졌다.

전에 없던 기침·가래·흉통, 폐암 4기 징후
전에 없던 기침, 전에 없던 가래, 약간의 흉통... 이런 증세가 있으면 폐암을 의심해야 한다. 조 교수는 이런 게 전형적인 폐암 4기 증세라고 말한다.

이런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내시경으로 암을 조기에 찾아낼 수 없을까. 그런 방법은 없다. 유일한 조기 검진법이 저선량 폐 CT 검사이다. 2019년 폐암이 국가 암검진에 포함돼 무료 검사가 됐다. 이는 최소량의 방사선을 쬐서 암을 찾는 검사법이다.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55~74세의



신규 폐암 환자 60% 4기 때야 발견
10명 중 4명 멀리 있는 장기로 전이
55~74세 30갑년 흡연한 고위험군
국가검진 여부에 생존율 차이 나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란 30갑년 흡연한 현재 흡연자를 말한다. 하루 평균 담배 한 갑을 30년 피우면 30갑년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34만 명가량 되는데, 이 중 50% 넘게 폐암 국가검진을 받는다고 한다. 2년마다 시행한다.

그러면 30갑년을 어떻게 확인할까. 최근 2년 이내 국가 일반건강검진(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을 받거나 건강보험의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할 때 문진표에 흡연 이력과 현재 흡연 여부를 표기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찾아낸다. 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선별해 폐암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한다. 정부는 이런 문진표를 입력해서 개인별로 관리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이 세계 최초로 폐암 국가검진을 도입했다.

스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이 세계 최초로 폐암 국가검진을 도입했다.

만약 30갑년 흡연 이력이 있고 55~74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건강검진을 2년 간 받지 않았거나 문진표에 흡연 관련 항목에 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찾아가서 흡연 이력을 얘기하고 검진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받을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검진 때 문진표에 흡연 이력을 있는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 해에 폐암 검진 통지서를 받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이예스터 기자
▶ 4면 '폐암'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2025 메디케어 보험 신청 및 변경

10월 15일 ~ 12월 7일

무료상담!! “**혹**” 달라진 보험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파트 B 보험료 보조 플랜과 \$3000의 치과 커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703-591-0009
703-537-9899

전화 주실 분

- ◆ 보험변경 하실 분
- ◆ 65세와 1960년생
-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소지자
- ◆ 치과 커버 필요하신 분
- ◆ 안경 혜택과 OTC 혜택

조은혜 종합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건물 2층)

Partner 보험회사
앤티 / 에트나 / 유나이티드
휴메나 / 케어헬스 / 웰케어

여름철 흑사당한 내 손발톱... 각질 뜯지 말고 보습제 발라 손상 줄여야

손발톱 건강 회복하기 여름을 거치면서 의외로 흑사당한 신체 부위가 손발톱이다. 노출 많은 여름엔 손발톱에 네일아트나 페디큐어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서다. 색을 칠했다가 지우고 스티커·액세서리를 떼다 붙였다 하면 손발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잘 부서지고 무르는 악순환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이땀 외부 자극을 줄이고 모자란 보습을 채워 손발톱 손상을 줄여야 한다. 더위가 물러간 요즘, 휴식하고 관리해 손발톱 건강의 회복기로 삼자. 김선영기자



출처: GettyImagesBank

조갑이라고 불리는 손발톱은 손가락·발가락 끝에 붙은 반투명의 단단한 케라틴 판이다. 손발을 보호하고 기능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겉으로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손발톱 역시 피부 부속물로 건강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 상태가 변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름이 지난 이맘때 살필 건 조갑연화증이다. 건강한 손발톱은 갈라짐이 없고 단단하며 분홍빛이 도는 매끈한 표면을 가진다. 근데 물이나 화학약품에 자주 접촉할수록 손발톱이 자라는 부위인 바탕 질이 망가지면서 판이 얇고 물러져 쉽게 구부러지는 조갑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 손발톱이 무르고 푸석푸석해져 부스러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회복 기간 손톱 6개월, 발톱 1년 반

손발톱을 수시로 꾸미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네일아트나 페디큐어를 할 땐 손발톱 판을 갈아내고 주위를 덮고 있는 일종의 굳은살인 큐티클과 각질을 깔끔하게 떼어낸다. 그 위에 색을 바르는 건 기본이고 큐빅·글리터 같은 액세서리로 장식한다. 이 과정에서 화학 성분에 지속해서 노출돼 손발톱이 건조해지고 날카로운 도구로 주변이 자극을 받는다.

지속 시간이 길어 많이 선호하는 젤 네일의 경우 굳힐 때 쓰는 자외선 램프, 지울 때 사용하는 전용 아세톤의 자극성이 강한 편이다. 요즘엔 전문숍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편하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제품이 나온다. 접착 성분이 순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고 스티커를 떼 때 손발톱이 손상될 수 있다. 장기간 붙인 채 지내면 제품과 손발톱 사이에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감염될 위험도 있다.

이런 행위는 모두 손발톱의 크고 작은 변화를 유발해 손상을 초래한다. 약해진 손발톱에 계속 자극을 줬다간 결국 단단하고 평평한 손발톱 부분이 피부에서 분리되는 조갑박리증이나 세균 감염으로 손발톱 주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조갑주위염으로 악화할 수 있다. 조갑주위염이 무서운 건 봉와직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피부와 피하층 연부 조직의 감염을 이른다. 세균이 혈액을 통해 퍼지면 패혈증을, 감염으로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 피부 괴사를 부를 수 있다.

손발톱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전체가 교체되는 데 손톱은 6개월, 발톱은 1년 반가량 기다려야 한다. 초기

엔 손발톱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여름내 네일아트·페디큐어를 즐겼다면 착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지우고 충분한 휴식기를 갖는 게 현명한 대처다. 우선 증상 부위를 잘라내 새로운 손발톱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 이땀 물에 오래 담거나 손톱과 그 주변을 뜯는 행위 같은 불필요한 자극을 최대한 피한다.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수시로 보습제를 손발톱 끝까지 꼼꼼하게 바른다.

필요에 따라 의사와 상의해 손발톱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케라틴·시스틴·바이오틴은 손발톱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보충하고 구조를 단단하게 결합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비타민·미네랄도 손발톱에 영양을 부여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염증 심하면 항생제 복용해야

손발톱 끝의 피부 상처를 통해 염증과 농양이 생겼다면 자연 치유를 기대하기 힘들다. 방치할 경우 손발톱 뿌리가 손상되고 변형·소실을 일으키는 데다 주위에 번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수주간 항생제로 치료하고 감염이 심하거나 농양이 크게 잡혔을 경우 감염된 피부를 자르고 고름을 배출시키는 수술이 요구된다. 간혹 스스로 판단해 소염제를 먹으며 견디는 사람이 있다.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되지

만, 치료 효과는 없으므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조갑주위염은 대부분 주변 세균이 손발톱 주변 상처를 통해 침투해 발병한다. 외출 후엔 손발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뒤 완전히 말리고 평소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손발톱은 둥글게 깎거나 너무 짧게 자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손발톱 밑이나 옆에 일어난 살과 각질은 무리하게 뜯어낼 필요가 없다. 다만 제거하고 싶다면 깨끗이 소독한 기구로 피부에 손상이 가지 않게 깔끔하게 떼어낸다. 일상에선 소고기·우유·달걀 등 단백질 식품과 과일, 녹색 채소를 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생활로 손발톱의 성장과 회복을 돕는다.

기고 송홍지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약 점검, 이상약물반응 살펴야

우리나라 국민 수명과 노인 인구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젊은 연령대에서도 만성질환과 약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약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약물 사용이 환자 안전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약물은 효과와 함께 항상 이상약물반응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는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안전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임산부약물정보센터 마더세이프에서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음주, 흡연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도 이상약물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독감 치료제를 복용 중인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에게 독감 치료제 투여 후에는 이틀간 혼자 두지 말고 잘 관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노인은 이상약물반응 위험이 가장 높은 연령대다. 평생시 문제없이 복용하던 약이라도 관절통 등 통증에 대한 진통소염제를 함께 복용하면 일시적인 신기능 저하가 생기면서 이상약물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식사와 음주 등 상황에 따라 이상약물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평소 전립샘 비대증 약을 안전하게 잘 복용하던 분이 과식과 과음 후 앓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일부 노인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잘 조절되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갑상선 등 수치에 변동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규칙 복용 여부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약이 밀리거나,

반대로 약을 실제 처방보다 여러 번 복용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다. 집에 챙겨줄 가족이 없다면 복약 달력이나 요일별 약통을 일정 위치에 두고, 자녀들이 흡캬으로 복약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남은 약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된다.

또한 검사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증상이 이상약물반응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치의와 함께 복용하는 약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약을 먹을수록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약물반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일부 증상에 대해서는 비약물요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을 권고한다. 역류성 식도 질환 증상은 과식과 과음을 피하고, 천천히 먹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자신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최근 1년간 병원 약국에서 조제받은 의약품 투약내역 및 개인별 의약품 알레르기·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약물반응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본 경우 한국 의약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등산화는 5mm 이상 크게, 배낭 무게는 몸무게 10% 이하로

안전한 가을 등산 가이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산으로 발걸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등산은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강 효과가 있다. 심리적 만족감은 덤이다. 하지만 자칫 무리하거나 부주의하면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숙지할 행동 요령을 짚어봤다. 하지수 기자

배낭

무거운 물건을 위로 배치

등산 시 배낭의 무게는 몸무게의 10% 이하가 적당하다. 가방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보조배터리, 우의, 랜턴, 비상식량, 구급약 등을 챙긴다. 특히 가을철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돗자리나 방석도 가져가면 좋다. 가방을 꾸릴 때는 물건 배치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무거운 물건은 최대한 위쪽에 배치하고 가벼운 물품은 아래쪽에 넣어 허리로 가는 부담을 줄인다. 무거운 물건을 등에서 떨어진 곳이 아닌 등판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도 힘을 덜 들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또 자주 쓰는 물품은 배낭 주머니나 앞쪽에 넣어 바깥쪽에 물걸레 등의 물건을 매다는 일은 삼간다.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고 자칫 나뭇가지에 걸려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다.

배낭

- 무게는 몸무게 10% 이하로 꾸리기
- 무거운 물건을 등판에 가깝게 배치



모자

- 끈으로 길이 조절 가능한 제품 유용
- 손쉽게 배낭에 넣을 수 있게 잘 접히는 모자 사용

등산 스틱

- 하중 덜기 위해 양손에 하나씩 잡고 사용
- 손 고리 밑으로 넣어 끈 감싸 쥐기

Tip

지 않는 울퉁불퉁한 돌이나 꺼진 지형이 있을 수 있어 보폭을 작게 해 천천히 걷도록 한다. 등산용 스틱 등을 이용해 확인 후 걸어도 좋다.

모자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 것으로

머리는 우리 몸에서 열이 잘 빠져나가는 부위다. 모자는 보온 효과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며 머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활동량이 많을 때 쉽게 벗겨지지 않는지 확인하면 좋다. 끈이 달려 얼굴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고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등산 중 필요에 따라 모자를 벗어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게 잘 접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요령이다.

등산화

5~10mm 여유 있게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등산 시 평소보다 5~10mm 여유 있는 크기의 신발을 신을 것을 권장한다. 도톰한 등산 전용 양말을 신는 데다 장시간 산행으로 발이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산 시 발이 앞으로 쏠려 생기는 발가락 마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등산용 양말을 신고 끈을 늦춘 상태에서 발가락 끝을 앞으로 붙인 다음 발뒤꿈치 쪽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면 적당하다. 또 신발은 발이 부어 있는 오후 시간대에 신어보고 사는 게 바람직하다. 양말은 면보다는 기능성 제품을 권한다. 면양말은 땀을 잘 빨아들이지만, 이를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해 쉽게 축축해질 수 있다.

옷

- 가을철 일교차 커 여벌 옷으로 체온 조절
- 저체온증 방지 위해 땀에 젖은 옷은 바로 갈아입기

등산화

- 제품은 오전보다는 발이 부은 오후에 구매
- 평소 신는 신발보다 5mm 이상 큰 치수 착용

보행

- 등산 스틱으로 낙엽 밑 상태 확인 후 걸기
- 발끝 대신 발바닥 전체로 안정감 있게 내딛기

초보 등산객이라면 주의하세요

이제 막 등산에 입문한 등산객이라면 몸보다 마음이 앞설 수 있다. 하지만 체력 고갈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서

둘러 정상에 오르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다가 차츰 30분가량 걷고 5~10분씩 쉬도록 한다. 산행에 적응되고 나면 1시간 정도 걸은 뒤 10분씩 규칙적으로 쉰다.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 이병훈 교수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도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 인대 손상을 겪을 수 있다”며 “가급적 속도를 줄이고 체력의 70~80% 수준으로 산에 오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과식은 금물이다. 산행 전 혹은 도중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를 소화하려 산소를 더 많이 쓰게 된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체력이 더 빨리 소모될 수 있어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먹도록 한다. 조난에 대비해 산행 중 국가 지정 번호, 산악 위치 표시판이 나오면 촬영하거나 기억해 두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간다. 또 하루 산행 시간은 8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해 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치고

도록 한다. 등산 전후로 체온이 올라갈 정도의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등산 스틱

내리막길에선 길게

등산 스틱은 하중의 20~30%를 덜어주고 보행 속도를 15%가량 높여준다. 한 쪽보다는 양손에 하나씩 잡고 사용하는 게 좋다. 스틱을 잡을 때는 손을 고리 밑으로 넣어 끈을 감싸 잡아야 놓치더라도 손목에 걸려 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스틱의 길이는 평지에 대고 쥘었을 때 팔꿈치의 각도가 90도로 접히는 정도가 적당하다. 오르막에서는 평

지보다 스틱을 짧게 만들어 쓰고 내리막길에서는 10cm 정도 스틱을 길게 해 사용한다.

옷

얇게 여러 벌 겹쳐 입기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여벌의 옷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얇게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어 체온을 조절할 수도 있다. 등산복은 땀 흡수가 용이한

기능성 제품을 착용하고 무리한 등산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늦기 전에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김미란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장은 “젖은 옷을 입고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거나 그늘 속에 있으면 체온이 내려가 떨림, 오한, 어지럼증 등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양지바르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머리·목 등으로 열이 빠져나가

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행

보폭 작게 해 천천히 걷기

걸을 때는 양어깨의 힘을 빼고 편안하게 상체를 앞으로 살짝 굽힌 채 무릎을 조금만 올리면서 발을 내딛는다. 발끝이나 발꿈치를 쓰지 말고 발바닥 전체로 안정감 있게 땅을 밟는 식이다. 특히 가을에는 낙엽이 쌓인 곳 아래에 보이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인터뷰 최영진·박하옥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과장

노화로 고장 난 심장의 '문' 최소침습 시술로 기능 회복



최영진(왼쪽)·박하옥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과장은 심장통합진료팀을 통해 고령 환자에게 적합한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를 계획하고 적용한다.

인성욱 객원기자

‘생명의 엔진’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에도 노화가 찾아온다. 일평생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혈액이 올바른 경로로 흐르게 돕는 문(판막)만 해도 그렇다. 노화로 기능이 떨어져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질환이 대동맥판막 협착증이다. 세계 심장의 날(9월 29일)을 앞두고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최영진·박하옥 과장에게 노화 시대 복병으로 떠오른 심장 질환, 대동맥판막 협착증에 대해 들어봤다. 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심장 전문병원이다.

박하옥 과장(이하 박하옥) 문제는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게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 기간 신체가 저하된 심장 기능에 적응해 환자가 단번에 증상을 체감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은 중증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문제를 자각하고 병원을 찾는다.

최영진 중증에 이르렀을 때 그나마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숨이 차고 흉통이 느껴질 수 있다. 혈류량이 현격히 줄어들어 의식을 잃기도 한다.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최영진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약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없어 수술, 시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전통적인 방법은 가슴을 열고 협착된 판막을 제거한 다음 인공 판막을 이식하는 수술이다. 다만 고령 환자나 동반 질환이 많은 경우라면 가슴을 여는 수술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게 최소침습적 시술인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이다. 개흉 없이 허벅지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관)를 삽입한 뒤 협착된 판막 부위에 인공 판막을 놓는 방법이다.

박하옥 환자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TAVI의 경우 보통 시술에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입원 기간 역시 비교적 짧다. 빠르면 2박3일 만에 퇴원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의료진의 경험치가 축적되고 장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TAVI 시술의 안전성, 성공률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은 어떤가.

박하옥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이거나 수술 불가능군 혹은 수술 고위험군 환자일 때 TAVI 시술의 자기 부담금은 5%다. 시술비의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과거에 비해 크게 비용 부담이 낮아졌다. 수술 중위험군과 저위험군의 환자 부담률은 각각 50%, 80%다.

-치료법은 어떻게 결정하나.

최영진 국제 가이드라인상 심장내과·흉부외과·과·마취과·영상의학과 등의 전문의로 구성된 심장통합진료팀이 대면 회의를 통해 수술의 위험도를 따져 보고 TAVI 시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동반 질환이 많다 보니 의사 한 명의 시각이 아닌 여러 관점의 의료진이 함께 환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하옥 우리 병원의 경우에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 2회 유관 진료과의 의료진 10여 명이 모여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TAVI 시술을 받는 환자가 생기면 추가로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눈다. 환자의 긍정적인 예후를 위해 심장 재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저하된 심장 기능에 익숙해진 환자와 시술 중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의할 점은 뭔가.

최영진 일단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정기 검진을 통해 시술 또는 수술 이후에도 판막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하옥 현재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아니더라도 금연, 절주는 물론이고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에 따라 지속해서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게 좋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경우 청진만으로도 1차 소견을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의심되면 심초음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상태를 살펴볼게 된다. 심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자라면 건강검진 시 심장 관련 검사를 함께 해보는 것도 좋다.

하지수 기자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

최영진 과장(이하 최영진)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뿜어내는 대동맥판막에 석회질이 침착, 협착된 상태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다. 협착 정도에 따라 크게 경도·중등도·중증으로 구분하며 중증 상태에서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1~2년 내 50% 이상의 환자가 급사에 이를 수 있다.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나.

▶ 1면 '폐암'에서 이어집니다

흡연자 자비로라도 저선량 CT 검사 필요

정부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 검진을 받았던 사람이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는 폐암 검진 대상자에 포함한다고 했지만, 금연한 사람은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흡연자만 대상에 든다.

60대 후반 A씨는 20대 이후 담배를 하루 1갑 반씩 피웠다. 집에서 “제발 담배 좀 끊으라”는 잔소리를 들었지만 금

연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국가 폐암 검진 안내문을 받고 떠밀리듯 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오른쪽 폐 아랫부분에서 8mm짜리 결절이 발견됐다. 당장 암을 의심하기에는 크기나 모양이 애매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3개월 뒤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 두 번째 검사에서 크기가 1~2mm가량 커진 게 관찰됐고 정밀·조직 검사 결과 폐암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술에 앞서 당장 담배부터 끊어야 했다. 금연클리닉에서 약 처방을 받았다. A씨는 무사히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는 “일찍 발견한 덕분에 전

이가 없어서 다른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다. 검진받길 정말 잘했다”라고 말했다. 김열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 의(폐암검진관리과리조양센터장)은 “국가 폐암검진 첫해 대상자 중 20%만 검사를 받았는데, 지난해 수진율이 50%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5년째라 조기진단과 사망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단계이지만, 대상자 중 검사 안 받은 사람과 검사받은 사람의 생존율을 대강 비교해본 결과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폐암 국가 검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폐암 신규 발생자 중 국가검진 대상에 드는 사람이 30%정도밖에 안 된다. 폐암 전문가들은 55~74세가 아닌 경우, 30갑년이 안 되는 경우(가령 20년 흡연자)라도 자비로 저선량 폐 CT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23만원을 받는다.

저선량 폐 CT 검사는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숨 한 번 참으면 될만한 시간이다. 대기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면 75세 이상은? 아직은 의학적

으로 굳이 권하지 않는다고 한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가 74세까지만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폐암 국가검진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조병철 교수는 “폐암을 조기에 찾아내는 명확하게 검증된 검진법이 없다”며 “저선량 폐 CT로 폐암을 검진하지만, 이 검사법이 사망률을 20%밖에 낮추지 못한다. 아직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이예스터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매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건강 칼럼

뒷머리에 자주 발생하는 통증

53세 여성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며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마치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은 통증을 호소했다. 아픈 부위는 주로 머리의 뒷부분이나 목 뒤쪽이었다.

특징적인 날카로운 통증이 순간적으로 뒷머리에서 정수리까지 뻗치기도 하였는데, 보통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수분간 계속된다고 한다. 이러한 통증은 하루에 적게는 수차례에서 많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환자는 간혹 눈언저리까지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심한 경우 두통과 더불어 두 눈도 매우 침침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한 두통과 더불어 어지럼증도 가끔 생겼으나 속이 메스꺼운 다는가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필자가 환자를 진찰하였을 때 환자의 목뒤 근육의 긴장이 매우 심한 것과 뒷목이나 머리 뒤의 여러 부위에 압통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은 찾을 수 없었다.

통증의 분포와 특징적인 찌르는 듯한 통증의 양상으로 필자는 환자의 두통을 “후두신경통”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 후두신경통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를 위해 때로 후두신경에 대한 진단치료적 신경차단술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서도 신경차단술의 시행직후 환

자의 통증이 바로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환자 상태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로는 영구 신경 차단술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환자의 상태의 극적인 호전을 가져오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후두신경통이란 머리의 뒷부분(후두부)과 목 뒤쪽(경추부)에 분포하는 후두신을 따라서 생기는 통증을 말한다. 말그대로 신경의 이상에서 나오는 통증으로 곧 신경통이라고 할 수 있다. 후두신경은 상부 경추에서 시작하여 그 주행에 따라 대후두신경과 소후두신경으로 나뉘어 진다. 목뒤와 뒷머리를 따라 올라가 머리의 가운데 부위로

올라가는 대후두신경, 그리고 귀 뒤를 통해 머리 측면으로 분포하는 것이 소후두신경이다.

후두신경통은 후두신경의 압박이나 염증으로 발생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제 1,2경추 측방관절의 만성적인 관절염증이라고 한다.

장기간의 컴퓨터 업무, 좋지 않은 자세 등, 경추의 이상 및 목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부르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그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쉽게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이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시니어

재감염은 신체장기 합병증 위험 증가

장기 코로나의 악영향

팬데믹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미국 과학아카데미는 장기 코로나(혹은 만성 코로나)의 감염 피해를 발표했다. 감염 후 최소 3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재발 및 완화되거나 진행성 질환 상태로 존재하며 하나 이상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 관련 장기 코로나 질환이다. AARP에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다.

▶ 잊혀지고 있는 코로나

코로나를 더 이상 무서워 하지 않는다. 미국 인구의 98% 이상이 백신이나 이전 감염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며, 파스르비드와 약물은 급성 증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심한 감기와 같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주 최소 1000명을 죽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증 급성 코로나에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남아 있다.

연방 질병통제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가 2023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입원의 63%와 입원 사망의 88%를 차지했다.

급성 코로나 감염 위험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장기 코로나 감염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중 10~20%가 장기 코로나 피해를 경험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재감염은 주요 장기 시스템의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러한 위험은 초기 감염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심혈관 질환, 치매, 암과 같은 많은 만성 질환 과정은 발병하는데 수년이 걸린다는 주장도 있다.

▶ 장기 코로나와 사망률

지난 7월 코로나는 미국 전체 사망자의 1% 미만을 차지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77.5세로 지난 2년 동안 높아졌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다.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코로나의 장기적 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네이처 메디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입원한 사람은 감염 후 3년 동안 사망 위험이 2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양한 의학적 문제의 위험이 증가했다. 가벼운 코로나19 발작을 겪은 환자도 초기 감염 후 3년 동안 호흡기, 심혈관, 대사 및 신경학적 문제가 지속될 위험이 증가했다. 장기 코로나 환자는 뇌, 폐 및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했다.

심장과 신체 전반에 미치는 장기 코로나의 영향을 설명하는 한 가지 이론은 염증에 있다. 감염될 때마다 장기 코로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뇌졸중, 심장병 및 심장 마비를 포함한 심장병의 병력이 있는 경우다. 바이러스가 관상 동맥 조직에 침투하여 심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요인은 백신 접종이다. 백신 접종은 장기 코로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백신 접종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75세 이상의 시니어가 백신을 가장 잘 접종했기 때문에 장기 코로나로부터 가장 잘 보호된다. 장기 코로나가 35~64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에게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특이증상

단일 검사로 장기 코로나에 걸렸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건강 기록과 현재 증상을 검토하고 다른 원인을 배제하여 장기 코로나를 진단한다. 포괄적인 치료법은 없다. 주치의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정맥을 치료하는 심장 전문의나 불안을 치료하는 치료사와 같은 전문의를 불러 집중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미 전역에는 장기 코로나 센터가 있다.

장기 코로나로 주요 생활 활동을 하나 이상을 크게 제한되는 경우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장애로 인정된다. 다음은 급성 코로나 감염 후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는 몇 가지 상태다.

- 1.극심한 피로=몸이 질병과 싸우는 데 피로를 경험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일부 사람은 초기 코로나 감염 후에도 오랫동안 피로에 시달린다.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될 수 있으며,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증가하고 있다. 일상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장애 수준의 피로다. 지속적인 피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인해 근육 내 에너지 생산이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다.
- 2.호흡 곤란=27세~80세 환자 144명의 흉부 CT 분석 결과, 코로나 감염자 중 3분의 1 이상이 바이러스에 접촉한



코로나 감염자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장기 코로나 증상이 평균 수명을 줄일 수 있을만큼 심각한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벡GPT생성]

지 2년 후에도 폐 흉터와 비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3.인지 변화=집중력 저하, 공허함, 건망증은 코로나가 가져올 수 있는 뇌의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일부 장기 코로나 환자의 경우 무기한 지속되는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사람의 장기에 남아 미생물군을 변화시키고 세로토닌 생성 능력을 방해하여 인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 4.우울증과 불안=기분 관련 장애는 코로나가 일으키는 5가지 문제 중 하나다. 바이러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과 기분 문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감염 12주 후에 11~28%의 사람이 우울증 증상을 보였고, 이 중 3~12%가 증상이 심각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 5.수면 장애=장기 코로나 환자의 40%가 수면 패턴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 보고했다. 1,056명의 코로나19 환자 중 76.1%가 불면증을 앓고 있고 22.8%가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다.

- 6.소화 장애=설사, 변비, 복통, 복부 팽창 및 가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이러한 증상은 후유증이 될 수 있다. 생존자 7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9%가 감염 후 6개월 동안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만성 위장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새 알러지 또는 알러지 악화=일부 사람이 이전에 없었던 알러지를 경험했다. 연구에 따르면 천식과 알러지성 비염과 같은 알러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코로나 진단 후 첫 30일 이내에 상당히 증가했다.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운 후에도 과민 반응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 있다.
- 8.통증=일부 생존자는 관절 통증에서 고한 통증까지 만성 통증과 싸운다. 염증성 관절염의 위험이 더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위험이 더 크다.

장병희 기자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 의사 (NCCA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마침 손님을 진료할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495, 236, 395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돈·정치 바람에 흔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빛과 그늘

유럽에서 클래식은 축구처럼 8월말 시작해 이듬해 6월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추첨제로 실시한다. 오프시즌인 여름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은 음악 행사를 넘어 오버투어리즘 논란을 낳는 관광상품이 됐다. 하지만 정해진 루틴에 맞춰 스케줄을 반복하다보면 타성에 젖어 마련이고, 관심을 견제해야 하는 아티스트부터 '예술의 오늘'을 확인하는 축제들 갈망하게 된다. 휴가철 유럽 전역에서 무수히 열리는 축제 가운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중부 유럽이 여전히 클래식의 핵심이며 잘츠부르크가 그 중심임을 알리는 자리다.



1 104년 역사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올해도 44일간 25만명의 관객이 172개의 오페라, 연극, 콘서트를 관람했고 객석점유율 98%를 기록했다. 2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의장 크리스티나 해머(왼쪽), 예술감독 마르쿠스 힌터호이저. 3 32년 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음악감독을 역임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2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의장 크리스티나 해머(왼쪽), 예술감독 마르쿠스 힌터호이저. 3 32년 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음악감독을 역임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1920년 연극 '에더만'으로 시작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올해 104회를 맞아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열렸다. 상주 악단 빈 필하모니과 객원 악단 베를린 필하모니,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 지휘자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리카르도 무티, 킬링 페트렌코, 사이먼 래틀의 호화 진용으로 잘츠부르크를 찾았다. 피아니스트 그리고리 소콜로프, 예브게니 키신이 독주회를 가졌고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은 마티네에 출연했다. 페스티벌 사무국은 44일간 약 25만 명이 172개의 오페라, 콘서트, 연극을 관람했고 98퍼센트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이브닝가운, 남성은 턱시도의 성장(盛裝)을 권유하는 전통은 그대로이지만, 축제 관련 돈의 흐름은 역동적이다.

존 강화에 모차르트를 선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초반부터 빈의 아방가르드 예품을 담은 플랫폼을 지향했고 그 결과로 빈 출신의 유대인 작곡가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당대 음악도 포용했다. 나치 반대를 분명히 한 지휘자 브루노 발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히틀러의 폭정을 피해 이곳에서 기틀을 잡았지만,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자 축제를 떠났다. 베를린 필하모니 음악감독 경력의 빌헬름 푸르트벵글러는 나치와 끈을 유지하며 잘츠부르크에 입성했고, 카를 뵘, 에르네스트 앙세르메, 조지 셀 등 신진과 중견이 거장들의 공백을 틈타 세계 중심에 데뷔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 내정 혼란으로 축제는 흔들렸지만 1954년 잘츠부르크 출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예술감독에 선임되면서 혁신을 이뤘다. 카라얀도 나치 부역 이슈가 있었으나 축제에 화제와 돈을 몰아주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카라얀은 자신이 감독하는 베를린 필하모니를 들었고 페스티벌홀을 신축했다. 페스티벌 자체 오페라 신작을 제작하고 오페라와 콘서트에 당대 최정상 성악가를 불렀다. 조수미도 카라얀의 오디션을 거쳐 '가면 무도회' 녹음과 출연이 정해졌지만 1989년 카라얀 사망으로 축제를 함께 하진 못했다.

카라얀 사후, 세기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침체가 계속됐다. 후임 예술감독 제라르 모르티에는 거목의 그림자를 지우는 작업에 매진했고 리카르도 무티는 이에 반발해 하동안 축제를 등졌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었던 2006년은 무티의 공백을 로저 노링턴,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메웠다. 카라얀을 대체할 거목에 목말라한 축제의 속사정을 간파한 건 러시아 자본이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마린스키 극장 예술

치스는 '돈조반니'를 지휘했다. 반면, 다국적 기업에서 브랜드 관리 경력이 풍부한 해머는 뚜렷한 반 푸틴 행보를 보였다. 먼저 축제 기조 연설에 러시아 현대사 전문가인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의 증손녀 니나 흐루쇼프를 불러 푸틴 정부를 맹비난했다. 연극 분야의 새 감독 마리나 다비도바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작품을 연출했다. 지난해 '에더만'의 주역 미하엘 마르텐스가 옥사한 반 푸틴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서신을 낭독했고, 미망인 율리아 나발라야가 참석을 타진하기도 했다. 반러-친러가 한 축제에 공존한 것도 중립국 오스트리아여서 가능하다.

리노베이션과 새 공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해머 의장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향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후원 자본을 찾아낼지 의문이다. 해머는 공연장 건립에 1200만 유로의 기부를 유지하고 공구업체 뷔르트의 후원 계약을 따냈지만 3년짜리 단기 스폰서다. 미술관, 미술품 후원으로 공해 사업의 폐해를 가린다는 '그린워싱' 비판 때문에 미술관, 박물관 후원을 중단한 서방 에너지 그룹들이 가스프롬이 빠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재정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작품을 제작한다면서도 가스프롬과 손잡았던 축제의 행태는 오스트리아 시민 감사가 없다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여름 시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예산은 약 6500만 유로(한화 약 960억원), 올 여름 축제 동안 티켓 매출과 대기업, 후원회 기부금 등 각종 수익은 약 3000만 유로(한화 약 444억원)다. 오스트리아 세계는 축제의 경제 효과를 약 3억 유로로 평가한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오스트리아를 넘어 '유럽 소프트파워의 요체'로 부를 만한 크기다.

카라얀은 재임 기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사무국과 의도적으로 긴장 관계를 조성하며 원하는 바를 얻었다. 1960년 페스티벌홀 신축을 기념해 오스트리아 정부가 핵전쟁 반대의 정치 메시지를 투사하자 카라얀은 권력의 축제 개입으로 간주해 예술감독직을 던졌다. 아울러 바이로이트, 뉴욕 메트 오페라로 떠난다는 소문을 지렛대 삼아 카라얀의 잘츠부르크 잔류 여론을 조성했다. 4년여 줄다리기를 끝에 카라얀은 축제를 다시 맡았고 잘츠부르크 부활절 축제 신설을 관철했다. 재임 기간 다른 오페라극장 감독을 맡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카라얀은 1955년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오스트리아의 노선을 활용해, 불가리아 베이스 니콜라이 가우로프 등 동구권 음악가를 불렀고, 경쟁 축제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의식한 바그너 악극을 만들었다. 로린 마젤, 클라우디오 아바도, 오자와 세이지, 주빈 메타에 이르는 유망한 지휘자들이 카라얀 소개로 잘츠부르크 무대에 올랐다.

카라얀 사후, 세기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침체가 계속됐다. 후임 예술감독 제라르 모르티에는 거목의 그림자를 지우는 작업에 매진했고 리카르도 무티는 이에 반발해 하동안 축제를 등졌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었던 2006년은 무티의 공백을 로저 노링턴,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메웠다. 카라얀을 대체할 거목에 목말라한 축제의 속사정을 간파한 건 러시아 자본이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마린스키 극장 예술

서방 에너지 그룹들, 페스티벌 재정 주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가스프롬 관계는 끊어졌다. "문화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는 서방 압력에 27년간 이사회 의장을 맡던 슈타들러가 가스프롬을 끌어들이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202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새 의장 크리스티나 해머와 예술감독 힌터호이저 사이에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 차를 드러냈다. 러-우 전쟁 개전 이후 쿠렌치스는 서유럽에서 왕따가 됐지만, 힌터호이저만큼은 이단아의 예술성을 잘츠부르크에 선보이자는 입장을 견지해 쿠렌

빈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이 정리했듯, 오스트리아 근대 정치는 융합과 재창조 능력으로 진보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독일 통합이 무산된 상실감을 달래는 이벤트로 시작해 카라얀의 독재로 성장했고, 그를 대신할 메시아를 러시아에서 기대하며 더러운 자본과도 손을 잡았다. 지금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스트리아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축제 권력을 둘러싼 유대 자본과 오스트리아 주변의 반유대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고민과 해결 과정이 오스트리아 시민 사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잘츠부르크 축제의 환희는 이방인이 즐기다 사라지는 신기루에 머문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변혁의 계기다.

한정호 공연평론가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White Oak T: 412 681 8505 Shady side T: 412 681 8505 South side T: 412 681 8505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cnic.com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첼트리 지역]

기록 추가요... 18세 양민혁, K리그 최연소 두 자릿수 골

(강원 FC)

프로축구 강원 FC의 고교생 공격수 양민혁(18)이 K리그1 데뷔 시즌에 역대 최연소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웠다.

양민혁은 지난 6일 열린 K리그1 33라운드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소속 팀 강원과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승점을 55점으로 끌어올린 강원은 선두 울산 HD(61점)와 6점 차, 2위 김천(56점)과는 1점 차 3위로 파이널라운드 A그룹(1~6위)에 진출했다.

이날 한 골을 추가하며 정규리그 10호 골을 터뜨린 양민혁은 갓진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18세 5개월 29일의 나이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정조국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이 안양 LG(FC 서울의 전신) 소속이던 지난 2003년 작성한 종전 기록(19세 3개월 20일)을 10개월 가까이 앞당겼다. 올 시즌 소속 팀 강원은 물론 K리그에서 각종 최연소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운 그가 세운 또 하나의 이정표다.

양민혁은 경기 후 "데뷔 시즌에 두 자릿수 골을 넣으며 새 기록까지 세우게 돼 영광"이라면서도 "아직은 부족하다. 좀 더 많은 공격 포인트가 필요하고, 경기력도 좀 더 꾸준해야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강원 구단 산하 유스 강릉제일고에 재학 중인 그는 윤정환 감독의 눈에 띄



K리그 최연소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운 강원 FC 공격수 양민혁. 시즌 종료 후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으로 이적한다. [뉴시스]

양민혁이 K리그 데뷔 시즌 세운 기록

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생 첫 정식 프로 계약 (6월) 월간 영플레이어상 4연속 수상 (4·5·6·7월) K리그에서 EPL 빅클럽 직행 (7월 토트넘 입단 계약)
최고	500만 유로 (73억원·추정) 유리리그 직행 K리그 중 최고 이적료
최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간 영플레이어상 4월 (18세) 이달의 골 7월 (18세 3개월) 이달의 선수상 7월 (18세 3개월) 두 자릿수 득점(10골 6도움) 10월 (18세 5개월 29일)

어 올 시즌을 앞두고 성인 A팀에 합류했다. 김병지 강원 대표이사는 "시즌 전 해외 전지훈련 기간 강원팀이 러시아의 강호 디나모 모스크바를 상대로 연습경기를 했다"면서 "기량 점검을 위해 선발로 내보낸 양민혁이 전반 6분

만에 화려한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수를 줄줄이 따돌리고 골을 넣었다. 그 한 장면이 올해 강원팀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고 했다.

양민혁은 K리그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스피드와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 날

카로운 골 결정력을 앞세워 일약 K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지난 7월에는 K리그1 최초로 월간 영플레이어상과 이달의 골, 이달의 선수상을 석권했고, 같은 달 손흥민의 소속 팀 토트넘 홉스퍼(잉글랜드)와 이적

계약을 체결해 또 한 번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달에는 흥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아 축구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미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K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때마다 토트넘 팬 사이트가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공유한다. 내년 초 고교 졸업과 동시에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인 양민혁은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고 우선 동료 선수들과 친해지고 싶다"면서 "자연스럽게 출전 기회가 생기자 보면 어느 순간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혁의 활약을 앞세운 소속 팀 강원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지난 2012년 K리그1이 스피릿 시스템(정규리그 종료 후 순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 마지막 일정을 치르는 제도)을 도입한 이후 강원팀이 A그룹(1~6위)에 올라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하지만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이전 세 시즌(2017·19·22)과 달리 올해는 정규리그 중반까지 선두를 질주하는 등 줄곧 상위권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남은 5경기에서 현재 순위만 유지해도 창단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3위 이내)도 따낼 수 있다.

송지훈 기자

'96년생 유럽파 듀오' 나란히 시즌 첫 골... 요르단전도 걱정 없다

축구대표팀의 공격과 수비를 이끄는 '1996년생 듀오' 황인범(28·페예노르트)과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나란히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한국 대표팀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원사령관' 황인범은 6일(한국시간) 트벤테와의 2024~25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8라운드 홈 경기에서 결승 골을 터뜨리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페예노르트는 개막 7경기 무패(3승 4무)로 리그 5위를 달렸다. 황인범은 페예노르트가 1-0으로 앞선 전반 43분 왼발 중거리슛으로 골을 터뜨렸다. 시즌 1호 골이자 페예노르트 데뷔골이었다. 그는 이 경기 최우수선수(MOM)에도 선정됐다.



축구대표팀 합류에 앞서 나란히 소속팀에서 득점포를 터뜨리며 기대감을 높인 수비수 김민재(왼쪽)와 미드필더 황인범. [AP·AFP·연합뉴스]



황인범은 지난달 3일 세르비아 츠르베나 즈베즈다에서 네덜란드 페예노르트로 이적했다. 이미 밴쿠버(미국), 루빈 카잔(러시아), 올림피아코스(그리스), 즈베즈다 등 다양한 리그를 경

'철기동' 김민재는 7일 벌어진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1호 골을 뽑아냈다. 전반 15분 골문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뮌헨은 김민재의 골을 지키지 못하고 3-3으로 비겼다. 뮌헨(승점 14)은 개막 6경기 무패(4승 2무)로 리그 선두를 지켰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엔 토마스 투헬 감독의 전술과 경기 스타일이 맞지 않아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 시즌 상황은 달라졌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뱅상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꾸준히 선발로 기용 중이다. 감독의 신뢰 속에 자신감을 회복한 김민재는 특유의 스피드와 힘이 살아나면서 상대 공격수를 푹푹 묶는 '철벽 수비'를 펼치고 있다. 이날은 '슈트라이커

(수비수+스트라이커)'의 면모까지 선보이면서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다.

경기마다 펄펄 나는 김민재와 황인범은 흥명보 대표팀 감독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다. 김민재와 황인범은 경기 후 곧바로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해 흥명보호에 합류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한국은 10일 암만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요르단(68위)과 맞붙는다. 대표팀은 이 경기가 끝난 뒤 곧바로 귀국해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55위)와 4차전을 치른다.

허벅지 부상으로 빠진 주장 손흥민의 공백을 '차세대 리더'격인 황인범과 김민재가 메워야 한다. 한국은 현재 1승 1무로 조 2위다. 8경기를 남겨둔 3차 예선에서 조 2위 안에 들어야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따낼 수 있다.

피주영 기자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1.9%	42.9%	2.3%	0.0%
매우좋음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영치

sciatca

좌골신경통

허리

엎드리면 통증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주소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락빌 (301) 279-6960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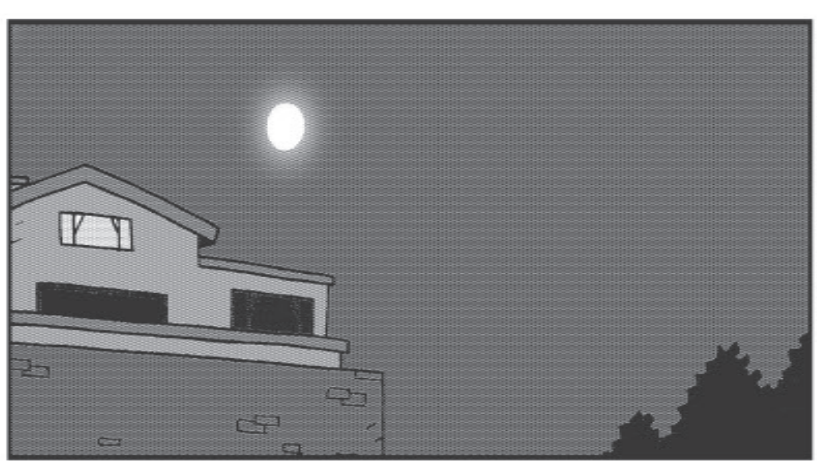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시간**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 메가씨킹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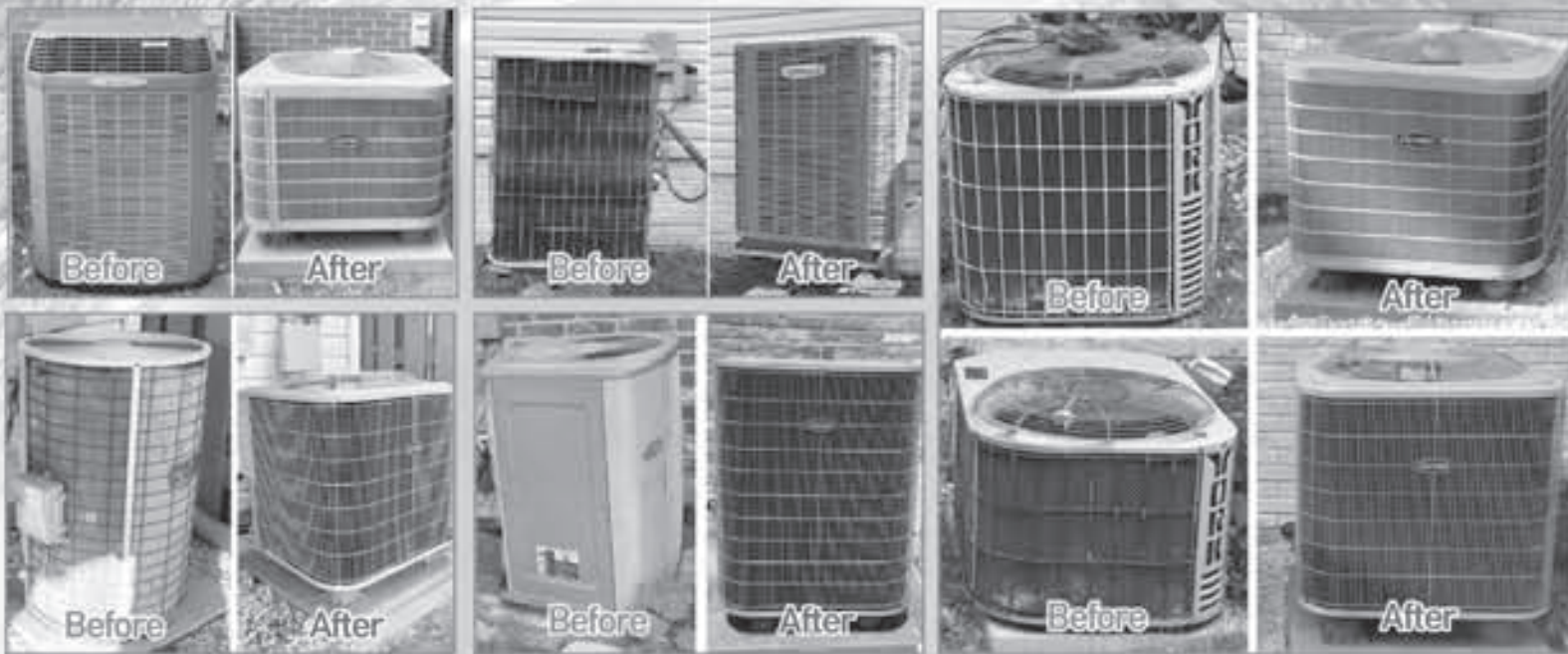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10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틸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무경험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용품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 폴/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험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수를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속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위성통교회 지휘자 모집 -자각: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 /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옥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모/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 타운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모,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룸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 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스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dkb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 수입 회사 세일즈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 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 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0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 (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자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폴/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진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 사무실 경험자 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명, 패킹/포장팀 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n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학생및유/무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 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및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양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중양일보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양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다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 92차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티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 텍사스드넛센터빌베이커조구함(아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림,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사스 (VA)
▶ 301-537-3800

No.1콜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구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함
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출발야해해주시분
(703) 473 6022.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처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 싱글홈 지하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 703-489-6926

▶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or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71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부/\$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택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렌트\$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자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 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입니다.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합니다. 월 \$7,495. 문의 703-244-3453

▶▶ 노바조지메이슨 5분, 왓슨하이 15분 도보거리/리모델링/새집같은 단독주택/방1, 지하워아웃/화장, 욕실, 거실, 부엌, 단신남자환영/10/27일 입주가능
703-425-9075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 1. 방장고, 간단가구 인터넷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애난데일 한강위 방1/화1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홀리포워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 타운하우스 방1/욕실/유포 센터빌트 데크
571-970-8048

▶▶ 애난데일 아파트/한강위/여자분 원함 /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 애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 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타운 길에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 교통 편리한 애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홀 안방+ 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 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 보내주세요.
571-345-8879

▶▶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 1.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 쉐틀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테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킴치, 워시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홀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 애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당,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3, 화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3, 화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3, 화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 리커 | 식당 | 카워킹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당,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날 바이어 Only)
571-242-3736

기타

▶▶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장소: 버크레이크 헬터/·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수스페닝(In,Out), 벽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인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든가스 검사 페업을 일으키는 라든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전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 벤트 크린, 가전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터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롤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 / 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매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컨, 덕트 클리닝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컨 덕트 클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시스템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시,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슈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이 사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 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항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 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 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방-청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 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 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전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 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 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올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유료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nothing special; 특별한 게 없다

Fred and Sharon are talking between classes ...

(프레드와 샤론이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Sharon: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샤론: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Fred: I have to study for a math test all weekend.
프레드: 주말 내내 수학 시험 공부해야 돼.
Sharon: I hate math. It's very boring.
샤론: 난 수학 싫더라. 너무 지루해.
Fred: It's not so bad. It just takes a lot of time. I've got homework to do every night.
프레드: 수학이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난 매일 저녁 숙제 해야 돼.

Sharon: Are you going to Terry's party on Saturday night?
샤론: 토요일 저녁에 테리가 여는 파티에 올 거지?
Fred: I'd like to but you know how it is. It seems like studying never ends.
프레드: 가고야 싶지만 너도 잘 알잖아.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Sharon: Come on! It's Saturday night! It would be good for you to take a break.
샤론: 왜 그래! 토요일 밤이잖아! 잠시 쉬는 것도 너한테

좋은 걸.
Fred: Well maybe I can make it for a while. It's potluck, isn't it?
프레드: 글썽 잠깐 갈 수는 있겠다. 각자 음식 갖고 오는 거 맞지?
Sharon: Yeah, I think I'll make a big fruit salad.
샤론: 맞아. 난 과일 샐러드를 큰 것으로 가져갈까 봐.
Fred: That sounds good. I'll try to put something together but I'm sure it will be nothing special.
프레드: 괜찮은 생각이네. 난 이것 저것 모아서 가져 가

야겠는데 특별한 건 없을 거야.
기억할만한 표현
▶ take a break: 쉬다.
"He just took a ten-minute break." (그는 10분 쉬었을 뿐입니다.)
▶ make it: 모임 등에 가다.
"I'm very happy that you made it to class today." (네가 오늘 수업에 나오니 너무 기쁘구나.)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수많은 싸움의 경험이 있는 노련한 장수. 세상의 온갖 풍파를 많이 겪어서 여러 가지 일에 노련한 사람 (4)몹시 성이 나서 화난 기세가 대단함 (7)무대의 앞쪽 아래에 장치하여 배우를 비추는 광선. 사회적 관심이나 흥미. 우리 고향은 최근 관광지로 ~을 받고 있다 (8)차를 달이거나 마실 때의 방식이나 예의범절 (9)층계, 다리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구조물 (11)음식을 먹은 뒤에 그릇 따위를 씻어 치움 (12)요금 따위를 지불한 사람에게 되돌려 줌 (13)집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되었다는 돌 (15)처음으로 인사할 때 성과 이름을 서로에게 알려 줌 (16)남에게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들은 운수 (18)곡식을 쟁거나 뺏는 곳 (21)개인의 이익만을 꾀하는 욕심. 사리 ~ (22)사원한 맛이 나는, 투명한 청량음료 (24)사거나 만들거나 하여 갖춤 (25)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26)권력이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기개 (28)길들이지 않은 망아지. 버릇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마□ (29)듣기 좋은 말로 남의 비위를 맞추어 달래는 일

세로열쇠

(1)죽어서 뼈만 남은 뒤에도 잊을 수 없음. 남에게 큰 은혜나 덕을 입어 정말 고마움 (2)늘어서 빛이 누렇게 된 오이 (3)길고 넓은 허. 쓸데없이 번잡하고 길게 늘어놓는 말 (4)목적하는 광물이 많이 묻혀 있는 광맥. 필요한 물건이나 이익이 많이 나오는 곳 (5)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빌 (6)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을 오히려 잘 모름 (10)남편이 있는 여자와 몰래 관계를 갖는 남자 (12)기빠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 (14)바위틈에서 나는 샘물 (15)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으면서 애써 사정함 (16)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남 (17)부끄러움을 씻을 (19)건물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등에 흠이나 시멘트 따위를 바름 (20)모든 일을 제쳐 놓고 왕립함 (22)물고기를 잡을 때 물에 뜬 고기를 건져 뜨는 기구 (23)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 예사로 운 일 (25)기와집의 추녀 끝을 장식하는, 무늬가 새겨진 기와 (27)심하게 손해를 당하거나 낭패를 보는 일. 엉뚱한 질문을 던져 선생님께 ~을 먹이곤 했다

스도쿠

1	4		8					
8		5					4	1
2	6		3	1				9
	1	8	5					3
	3	9	1	8	6			2
			7			8		
3						1		4
	8		4					
	7				5	6	9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6	9	5	3	2	1	7	4
5	3	7	1	9	4	2	8	6
4	2	1	8	7	6	9	5	3
9	1	8	3	6	7	4	2	5
2	5	4	9	8	1	6	3	7
3	7	6	2	4	5	8	1	9
6	8	5	4	1	3	7	9	2
1	4	3	7	2	9	5	6	8
7	9	2	6	5	8	3	4	1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구인

병원 리셉션 및 간호사
폴/파트타임
풀러턴 지역
한국면허 인정
(714)389-7000
stemsmedical@gmail.com

매매

치과 급매(4곳)
파트너쉽도 가능
*1년 Income
-Riverside(1.6M)
-Fullerton(1.3M)
-Upland(1.3M)
-San Diego(0.6M)
현재 3곳은 흑자회사임
(949)688-8580 문자

덴탈랩(밸리)
월매상\$17,000, 가\$5만5천
주인은퇴 (213)269-7802

잘되는 아웃선 전문점
급귀국 양도매매, 맨하탄버커
(213)268-9946

사람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력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는 아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 주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이름 : 심 중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생 연락처 : 작은 아버지 (213)905-3874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us.srotech.com
차콜온돌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허워드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매달리치마 산맥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채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 대 \$1,400 (450g)
- 특대 \$1,800 (450g)
- 중 \$1,200 (450g)

2024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가을학기 개강 9월 16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Atlanta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